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Mutual Perceptions of ASEAN and Korean Youth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Mutual Perceptions of ASEAN and Korean Youth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ASEAN-KOREA CENTRE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목차

발간사	4
I. 인식 조사의 목적과 진행	7
II.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	11
III. 한국에 대한 아세안 청년의 인식	31
IV.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비교와 시사점	57
V. 인식 조사의 의의 및 제언	67
부록	69
• 한국 청년의 인식 조사 설문지	
• 아세안 청년의 인식 조사 설문지	
• 한국 청년의 인식 조사 설문결과	
• 아세안 청년의 인식 조사 설문결과	

발간사

2017년은 아세안 창설 50주년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세안,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인 올해,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라는 의미 있는 주제의 결과물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그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1989년 부분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국과 아세안은 1991년, 완전대화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서울에 한-아세안센터가 출범하였고, 2010년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아세안대표부가 신설되었고, 2017년에는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이 개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해외투자 대상, 건설수주 시장이며, 우리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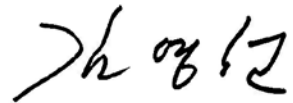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지난 노력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이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도 조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 양측 국민 간 인식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한-아세안센터는 그 첫 단추로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금번 인식도 조사는 동남아 지역 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온 한국동남아연구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과 인력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한-아세안 관계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고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인식수준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상생 협력을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조사가 앞으로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가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인식 조사로 확대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지며, 나아가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조사를 수행·분석해주신 한국동남아연구소 윤진표 교수님 외 연구진,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1

인식 조사의 목적과 진행

1. 인식 조사의 목적

세상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식의 문제는 세상을 해석하는 출발점이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첫 단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협력과 발전을 이뤄왔다. 2009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렸고, 2010년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 25주년 기념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그렇지만 협력관계가 확대된데 비해 양측 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깊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지역이자, 해외투자지역, 건설수주지역으로 부상했고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역이 되었지만, 한국과 아세안의 심화 관계를 나타내는 양측 국민 간 인식도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양측 국민 간 인식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실시된 바 없다. 한국동남아연구소가 한국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 10개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2010년 발간한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유일한 조사였다. 당시 한국동남아연구소는 아세안 10개국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정량적 방법으로 그쳤을 뿐, 각국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같은 정성적 방법을 활용한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인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은 민간기업의 동남아 1~2개 국가에 한정된 시장조사 차원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확실하게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측 국민 간 인

식 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법을 찾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인식도 수준 조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수요에 부응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조사는 한-아세안센터와 협력하여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 인식을 파악하여 한국과 아세안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결과는 한국이 아세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한국과 아세안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정책방향을 취해야 할지,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동반자관계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은 아세안 창립 50주년이자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다. 이에 이번 청년 인식도 조사는 더욱 시의적절한 작업이 되었다. 본 조사는 향후 한국과 아세안 국민 인식 조사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식도 변화와 발전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발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인식 조사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알림으로써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인식 조사의 진행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는 경험과 이미지, 관계 현황, 미래에 대한 전망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한국 청년이 아세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아세안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반면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인식도 조사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정량적 방법인 설문조사(survey)와 정성적 방법인 초점집단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설명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한 25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20~35세 이하 한국 청년 1,004명 및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 320명으로 구성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표본은 모두 대학교와 대학원생 중에서 추출했다. 한국 청년은 10개 내외의 대학(원)생 중 수도권과 지방을 각 50%, 남녀 각 50%로 표본을 구성했다. 다양한 전공과 학년을 상대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조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면대면 오프라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아세안 유학생은 한-아세안센터가 보유한 유학생 명단과 연구진이 보유한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였다. 320명의 아세안 유학생은 남자 93명, 여자 181명 (46명 미응답)이고, 인도네시아 69명, 말레이시아 52명, 베트남 37명, 필리핀 31명, 태국 18명, 라오스 18명, 캄보디아 17명, 브루나이 15명, 싱가포르 6명 (57명 미응답)이었다. 설문조사는 2017년 5~6월에 실시했고, 수집된 자료를 갖고 통계분석을 진행했다.

초점집단인터뷰는 한국 청년 13명, 아세안 유학생 15명을 할당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6~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회 2시간씩 총 4회 수행한 초점집단인터뷰는 사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지를 갖고 진행하였으며, 질문자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심화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는 녹취록으로 정리되었다. 인터뷰는 7월 10일과 11일은 아세안 유학생, 8월 8일과 10일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아세안센터 회의실에서 수행되었다.

2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

1. 아세안에 관한 경험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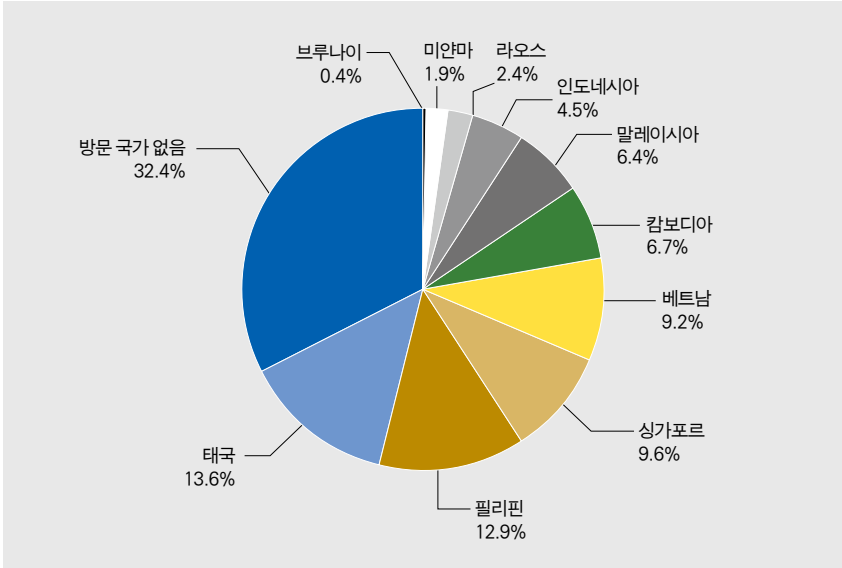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에 관한 경험은 방문경험과 목적으로 나누어 질문했다. “아세안의 어느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방문 국가 없음’이 1위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32.4%에 불과하며 나머지 67.6%는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 청년들은 태국(13.6%), 필리핀(12.9%), 싱가포르(9.6%), 베트남(9.2%), 캄보디아(6.7%), 말레이시아(6.4%), 인도네시아(4.5%), 라오스(2.4%), 미얀마(1.9%), 브루나이(0.4%)의 순서로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방문한 국가 중에 남성은 필리핀(14.4%)-태국(14.0%)-베트남·싱가포르(8.6%)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태국(13.5%)-필리핀(11.7%)-싱가포르(10.4%)-베트남(9.6%)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가 상위권을 이룬 것은 방문 목적과 연관이 있다.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 국가의 방문 목적은 압도적으로 ‘관광 및 여행’이 1위(62.4%)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11.3%)가 2위, 어학연수(8.7%)가 3위를 차지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 역시 처음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목적을 관광과 여행이라고 대답했다. 2위를 차지한 자원봉사는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의 동남아 자원봉사 및 교회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비율이다. 어학연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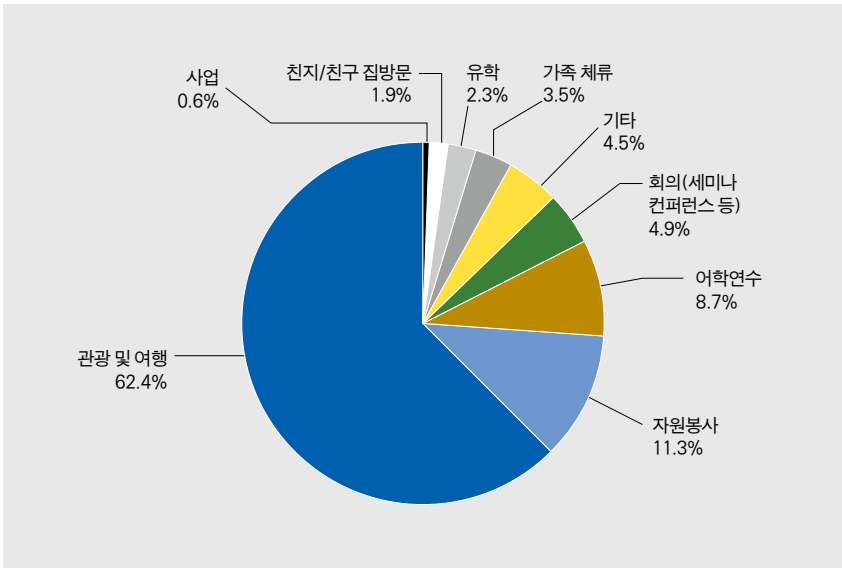
현재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은 정보접근 방법, 음식에 대한 선호도, 국가에 대한 선호도,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인터넷(SNS)이 36.8%로 1위, 그 다음으로는 방송(TV/라디오)(25.4%), 주변인물(12.9%), 수업(11.0%) 순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청년들에게 인터넷(SNS)과 방송(TV/라디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매체임을 알 수 있고, 정보접근 방식으로 인해 아세안 개별 국가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터넷(SNS)과 방송(TV/라디오)에서 자주 접하거나 노출되는 국가일수록 해당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고, 이는 해당 국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방문하였는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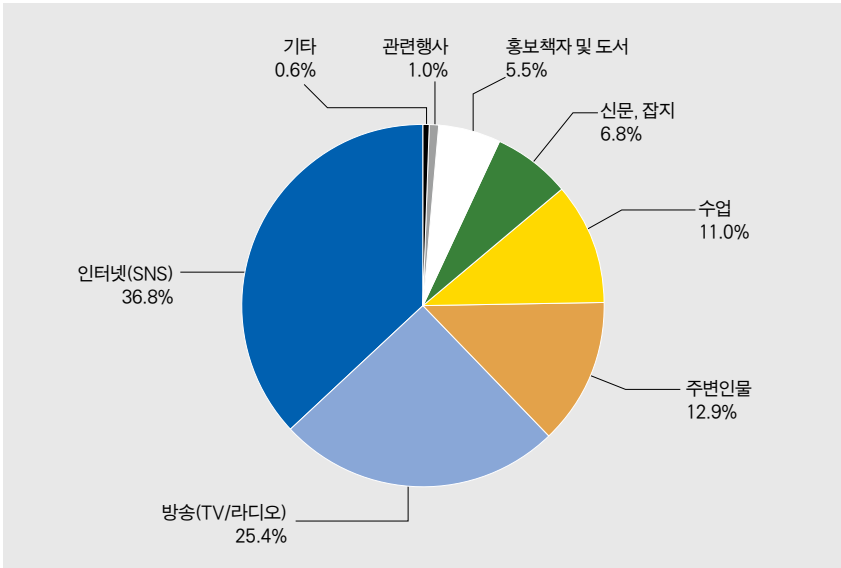
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아세안 방문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아세안과 동남아 개별 국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SNS)과 방송(TV/라디오)을 활용하는 것과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출연시키는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인터넷(SNS)의 정보 불확실성은 보완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인터넷(SNS)에 아세안 관련 정보가 잘못 게재되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한 동남아 전공 학생들도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동남아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한국 사이트를 검색한 후 현지나 외국 사이트 또는 아세안 현지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검증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보가 인터넷(SNS)에 노출되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지고 알려져야 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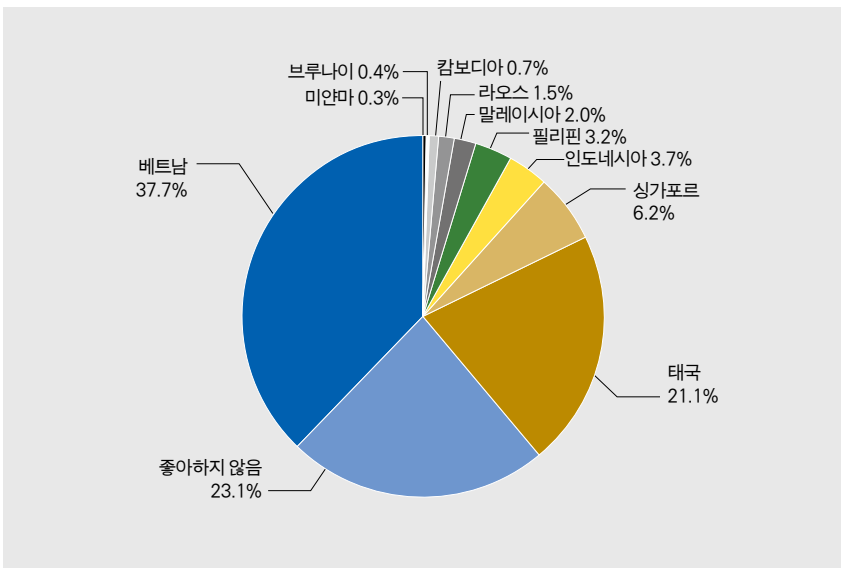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아세안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동남아지역 전공 학생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에서 본 동남아와 현지인들에게 직접 듣는 동남아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꽃보다 청춘> 등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아세안은 예쁜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지역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와 동일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환상보다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통해 관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이 관광 또는 여행을 위한 방문이 빈번한 지역인 만큼 안전, 치안, 위생 등의 현지정보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의 음식을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좋아하지 않음’은 23.1%로 나타났는데, 앞의 ‘방문한 적이 없음’의 32.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는 방문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음식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 방문국가나 호감도와 상관없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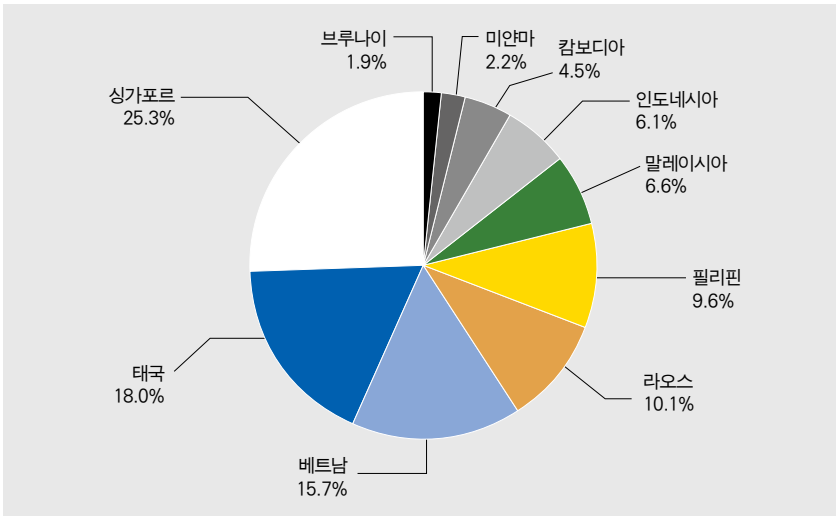


다음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의 음식을 좋아합니까?



남녀 한국 청년 모두 베트남과 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다른 동남아 나라 음식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아세안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에서 아세안 음식을 접하는 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은 베트남(34.2%), 좋아하지 않음(24.8%), 태국(21.3%) 순으로, 여성은 베트남(40.5%), 좋아하지 않음(21.8%), 태국(21.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아세안 음식을 조금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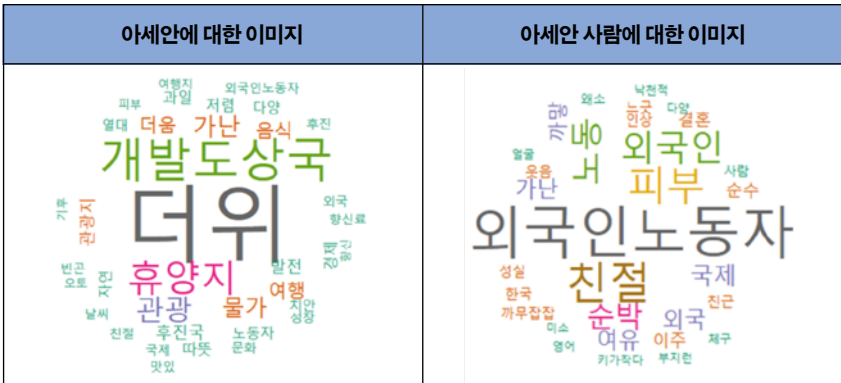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는 남녀 모두가 싱가포르를 1위로 선택했고, 태국이 2위, 베트남이 3위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는 부국과 청결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태국과 베트남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여성들의 라오스에 대한 높은 호감도에서도 증명된다. 일반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데 반해, 여성들의 라오스에 대한 호감도는 12.5%로 특이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꽃보다 청춘> 등 수년 전부터 연예인이 출연하는 라오스 여행 TV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된 영향이라고 본다.

“아세안 10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라는 질문과 “아세안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는 흥미로운 대답이 많이 나왔다.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는 ‘더위’, ‘개발도상국’, ‘휴양지’, ‘관광’, ‘여행’ 등이 많이 나왔다. ‘더위’는 아세안하면 열대기후가 떠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휴양지’, ‘관광’, ‘여행’ 등의 답변은 청년들이 아세안을 관광의 이미지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답변도 많이 나왔다. ‘가난’, ‘후진국’, ‘빈곤’ 등, 이를 통해 여전히 아세안이 한국에 비해 가난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에서 접하는 아세안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투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 ‘결혼’ 등의 답변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아세안 유학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세안 사람이라고 하면, 하대를 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보면서, 사랑해서 결혼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피부색깔을 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을 여행하기 좋아하는 국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세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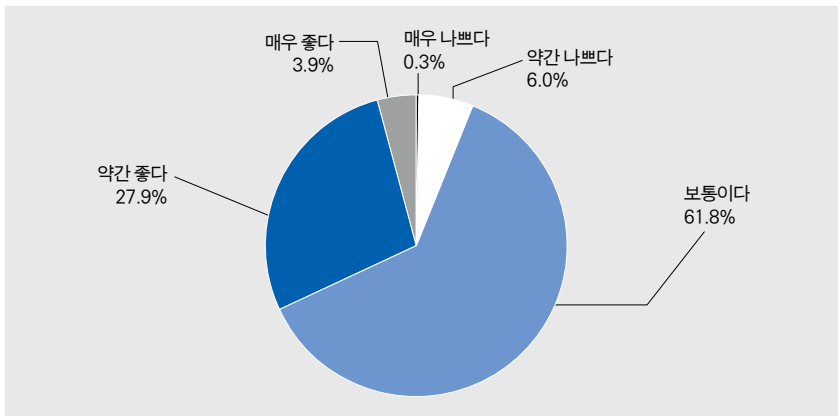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현지 혹은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아세안 사람을 만나 보지 못한 채, 미디어에 노출된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가 축적된 결과라고 본다. 부정적 이미지가 짧은 시간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아세안과의 인적교류 기회를 넓히고 현지인과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 청년들과 직접 교류하며 친분을 쌓는다면, 아세안 사람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 이미지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피부 색깔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다. ‘피부’, ‘까망’, ‘까무잡잡’ 등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한국인과 쉽게 비교되는 외양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세안 사람들의 성격은 ‘친절’, ‘순박’, ‘여유’, ‘느긋’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유있게 산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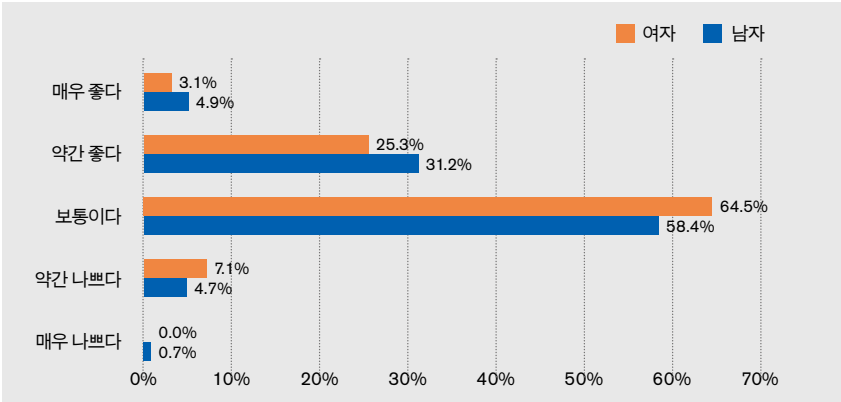
2.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61.8%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 등 긍정적 답변이 31.8%로 부정적인 답변 6.3%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 청년들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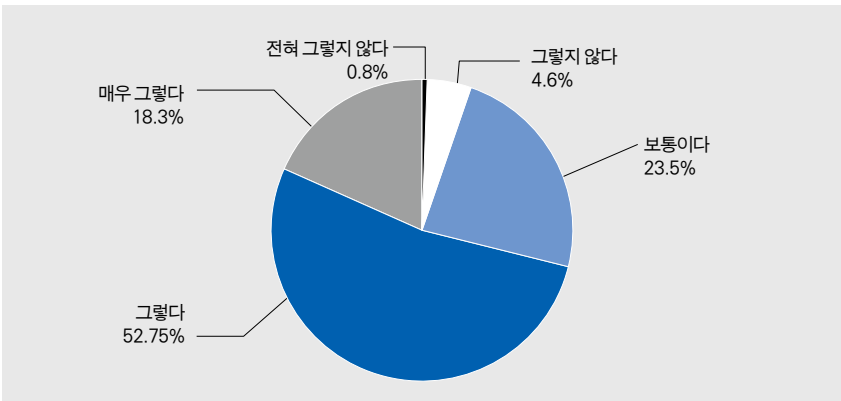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성별 비교)



설문조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검정 결과 $\chi^2=12.778$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해 남성 청년들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른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아세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긍정적인 답변(71.1%)이 부정적인 답변(5.4%)보다 우세했다.

아세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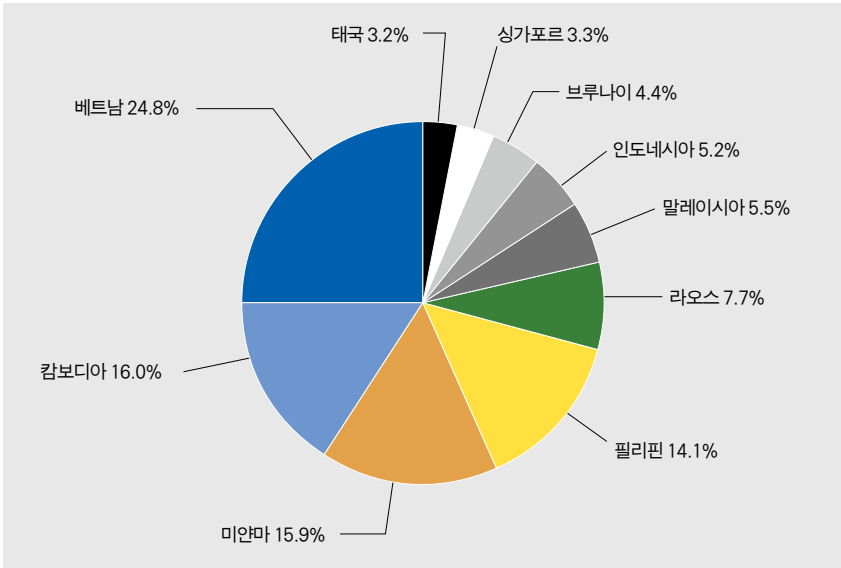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와의 도움을 주고받는 질문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베트남이 24.8%로 1위였고, 캄보디아(16.0%), 미얀마(15.9%), 필리핀(14.1%)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으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싱가포르가 37.6%로 1위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베트남(23.0%), 필리핀(11.1%), 인도네시아(10.4%) 순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1위에 오른 것 역시 현재 싱가포르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주목할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 청년들에게 베트남은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인 동시에 한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양면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전히 베트남을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한인 기업의 진출 이후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베트남을 주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익숙함과 비슷한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청년들 역시 주변에서 베트남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본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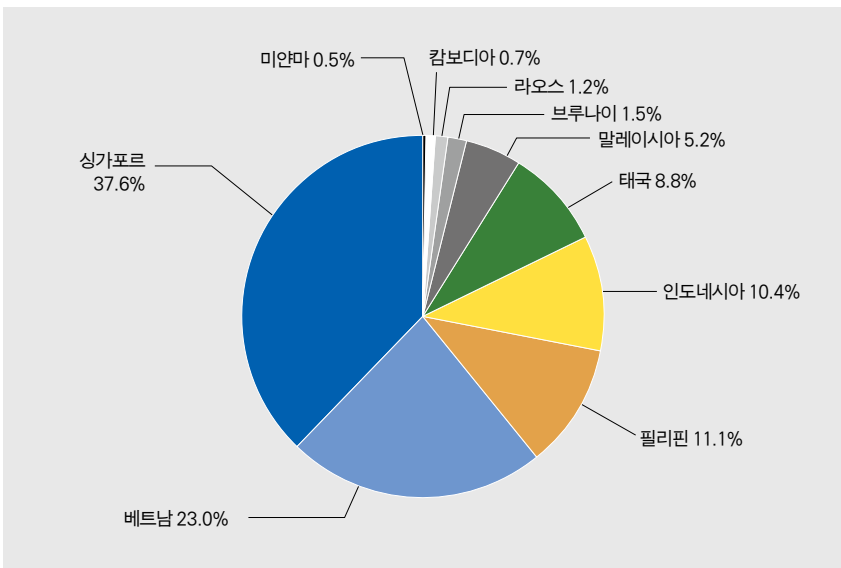
한편 베트남전쟁에 한국이 참전했던 역사적 부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학생은 “라이타이한 문제들처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베트남은 현재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아세안 국가임이 분명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세안에서의 실제적 위상과 한국 경제와의 높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달리 한국 청년들에게 인식되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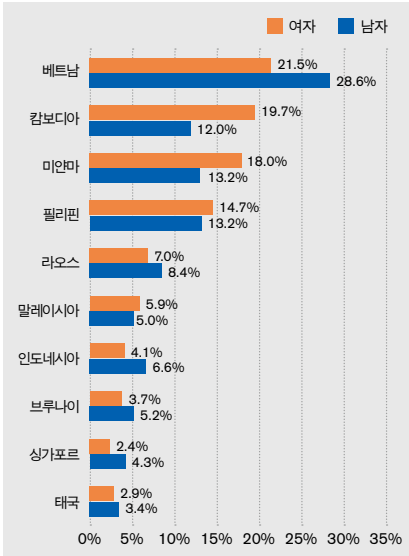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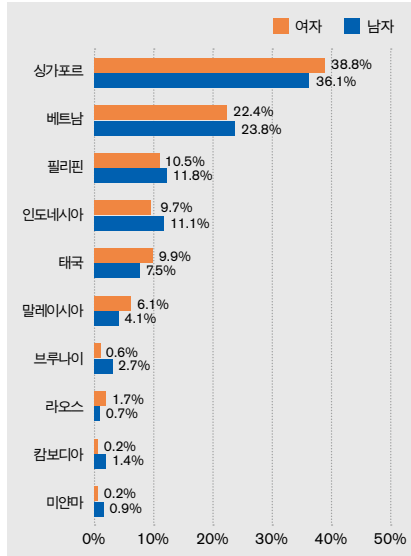
한국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성별 비교)



한국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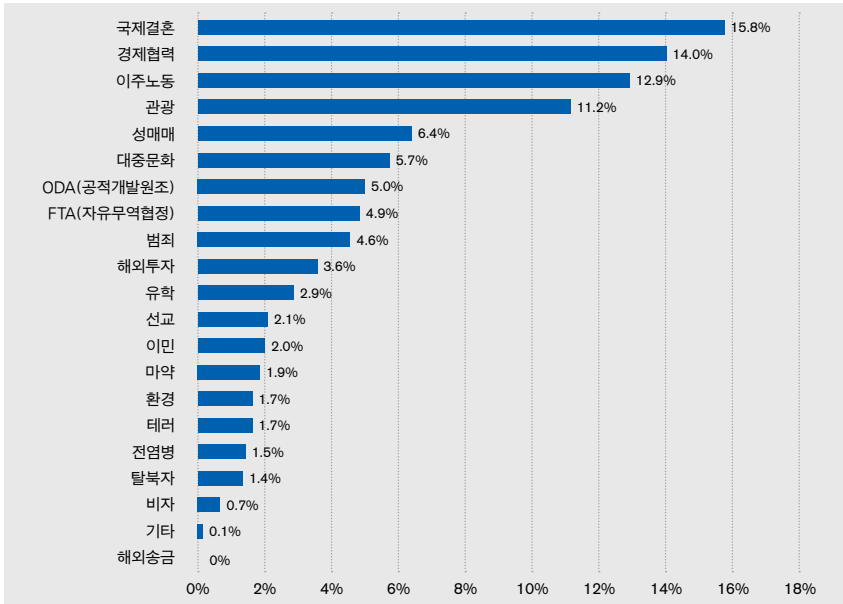
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적고, 한국 청년들이 여행과 관광 등 인도네시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와의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성별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은 $\chi^2=26.008$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베트남을 1위로 응답하였지만, 남성(28.6%)이 여성(21.5%)에 비해 높은 수치로 베트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역시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21.686$ ($p<0.05$)으로 남녀 간 답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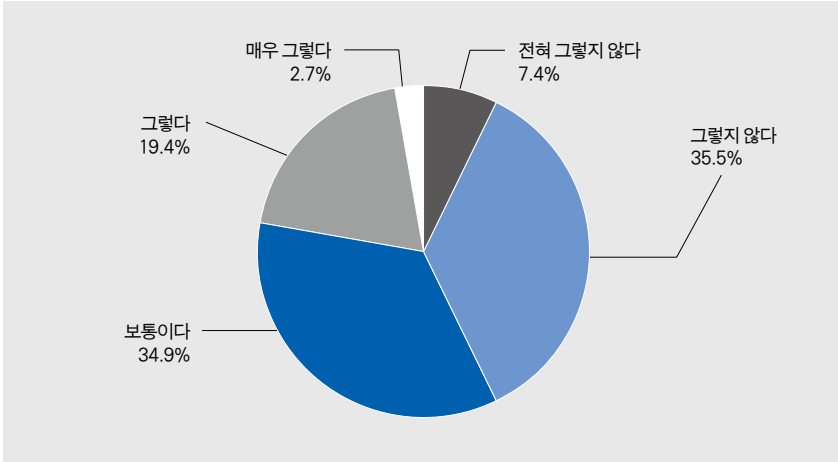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결혼이 15.8%로 1위, 뒤를 이어 경제협력(14.0%), 이주노동(12.9%), 관광(11.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첫 번째 중요한 이슈로 답한 한국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은 아세안을 물적 대상이 아닌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인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을 지적한 것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사람들로부터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경제협력 같은 물적 교류 못지않은 사람 간의 접촉과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세안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한국 청년들은 ‘(전혀)그렇지 않다’(42.9%), ‘(매우)그렇다’(22.1%)로 답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차지하는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내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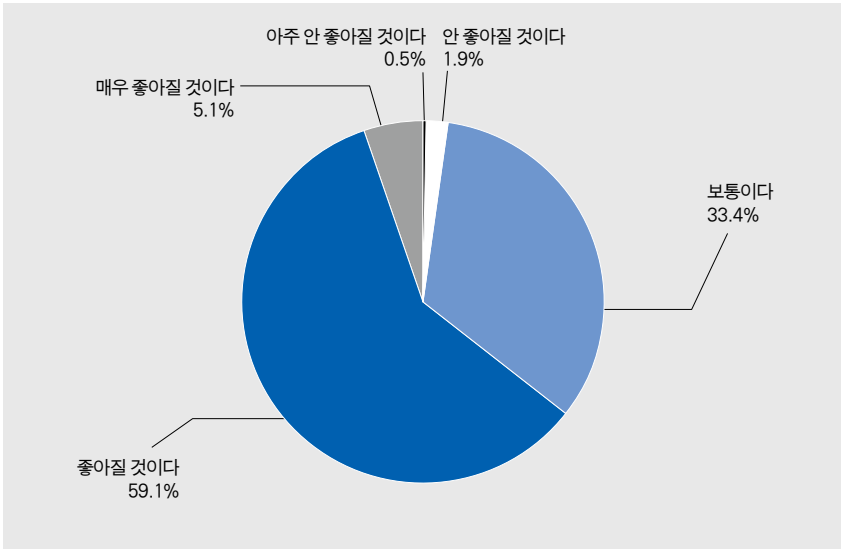
3.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에 대한 인식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인식은 한-아세안 관계 전망, 아세안 혹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64.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현재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31.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부정적인 답변은 2.4%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청년들은 앞으로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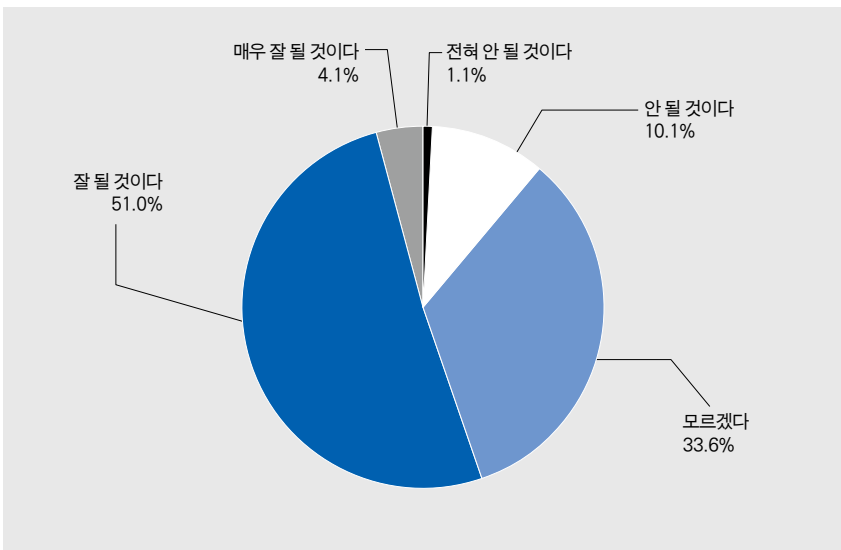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와 동아시아 국가들(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55.1%로, 부정적 답변 11.2%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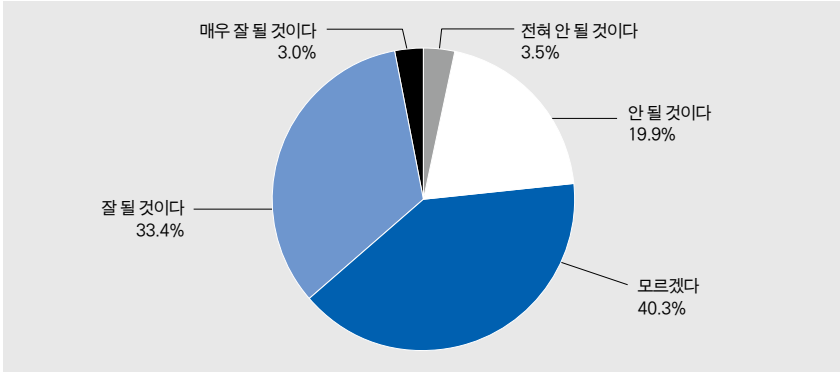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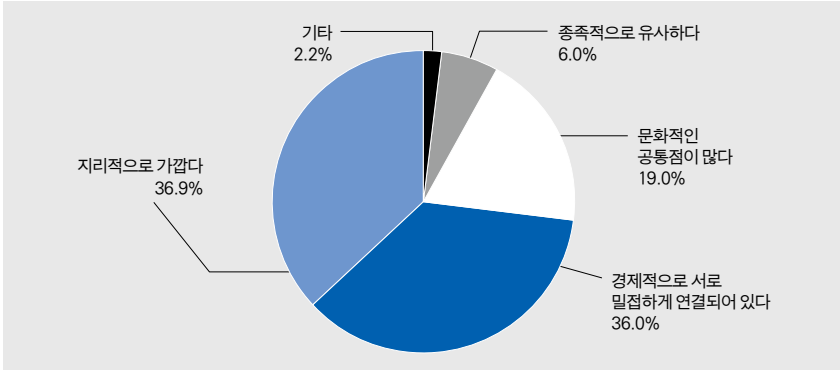
아세안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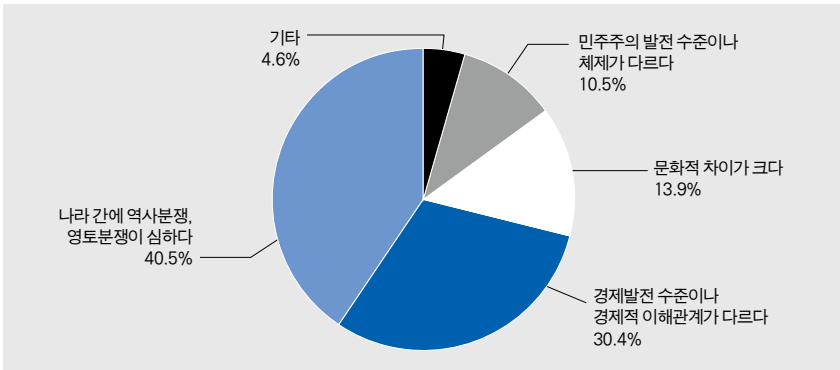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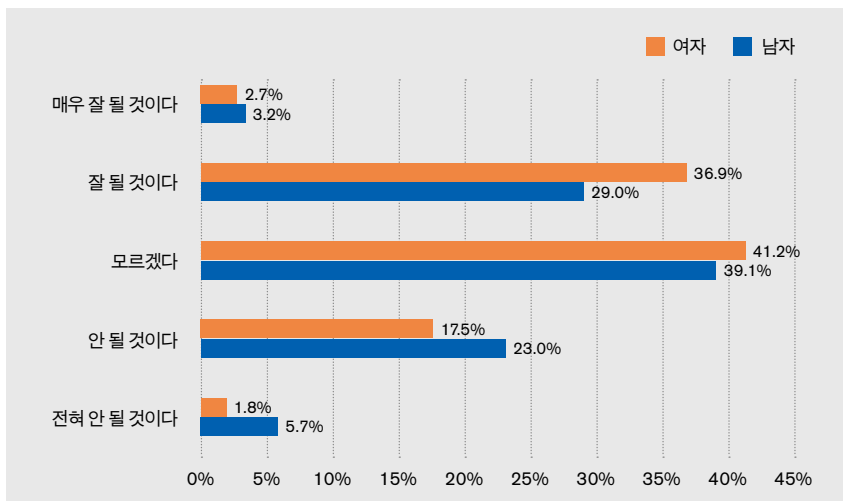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모르겠다’가 40.3% 이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36.4%로 부정적인 답변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지리적 근접성(36.9%)과 경제적 상호 연관성(36.0%)을 공동체 건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했고,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역사적 영토적 분쟁(40.5%)과 경제발전 수준차이(30.4%)를 공동체 건설의 걸림돌로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의 긍정적인 답변이 32.2%인 반면 여성은 39.6%로 약 7%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답변에서도 남성이 28.7%인 반면 여성은 19.3%로 약 9%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카이검정 결과 $\chi^2=18.086$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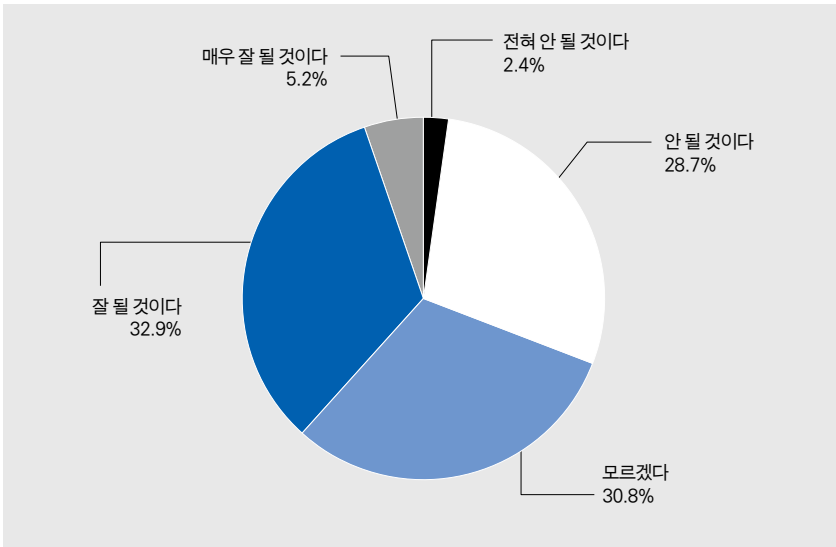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성별 비교)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 청년들은 38.1%가 ‘(매우)잘될 것’이라고 했고, 31.1%는 ‘(전혀) 안될 것’으로, 30.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국 청년들은 경제 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의 가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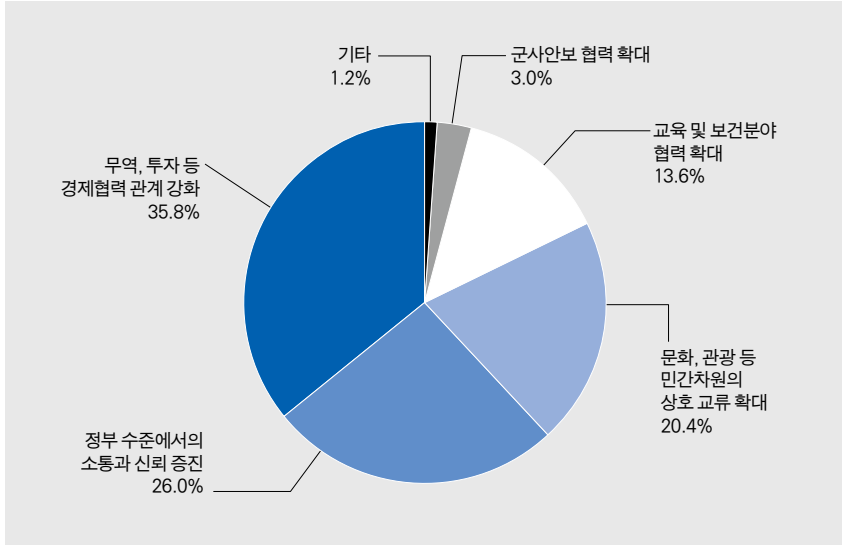


4. 한국 정부의 역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에 가장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청년들의 35.8%가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우선으로 택했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신뢰 증진(26.0%), 문화, 관광 등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 확대(20.4%), 교육 및 보건분야 협력 확대(13.6%) 순으로 택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 강화와 상호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청년의 동남아 진출 희망과도 연관되었다고 본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과의 중요 이슈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은 모두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은 “아세안과 하고 있는 협력 혹은 관계 등을 언론에서 많이 노출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이나 청소년 교류, K-Beauty 등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나 분야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 차원에서 공적영역과 함께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에 대한 아세안 청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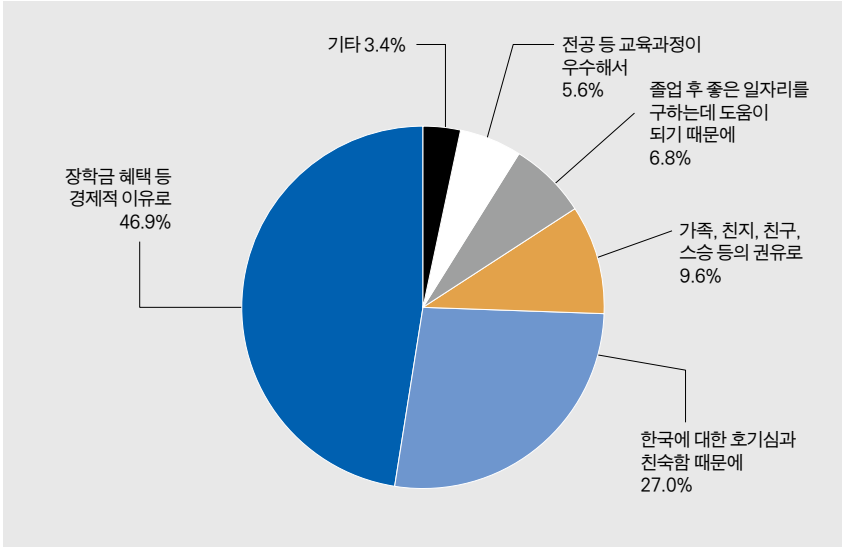
1. 한국에 관한 경험과 인식

아세안 유학생들의 한국에 관한 경험은 한국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만족도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로’가 46.9%로 1위였고, 뒤를 이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27.0%),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등의 권유로(9.6%),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6.8%)의 순으로 나왔다. 한국에서 유학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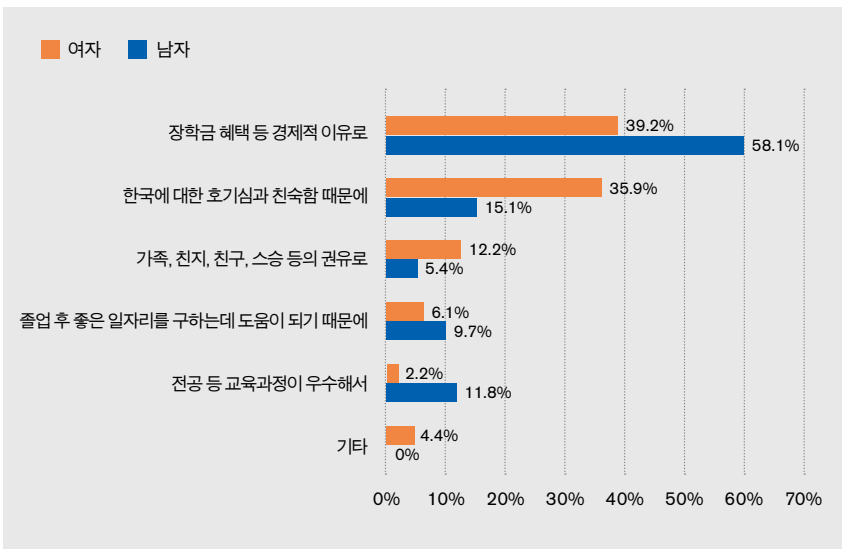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성별과 국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로’가 남녀 모두에서 1위였지만, 여성이 39.2%인데 반해, 남성은 58.1%로 여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은 경제적 이유와 유사한 비율로(35.9%)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였다고 답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라는 이유를 선택한 남성은 15.1%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31.414$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경제적 이유로, 여성은 경제적 이유와 함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서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 아세안 국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는 응답이 1위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가 1위였다. 라오스(72.2%), 태국(66.7%), 필리핀(77.4%) 출신의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말레이시아(48.1%), 캄보디아(58.8%), 베트남(37.8%) 출신의 청년들도 경제적 이유가 1위지만,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 말레이시아(28.8%), 캄보디아(23.5%), 베트남(21.6%)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반면에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가 경제적 이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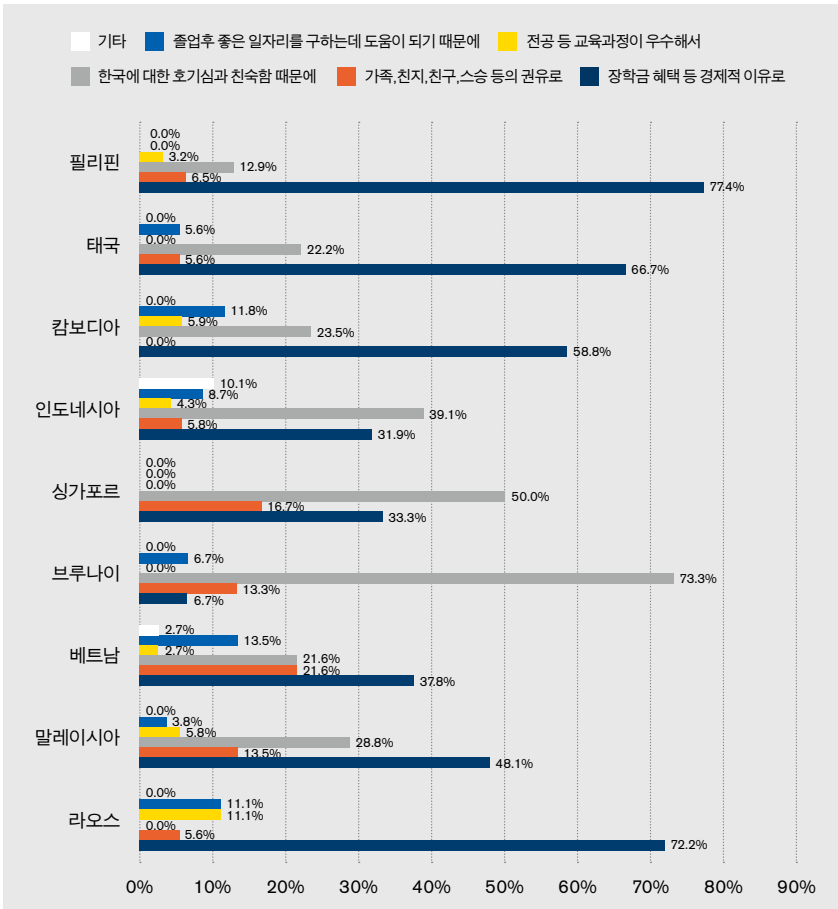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별 비교)



싱가포르(50.0%), 인도네시아(39.1%)에서는 경제적 이유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를 더 많이 택했다. 브루나이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이유가 6.7%로 나옴에 비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선호도는 73.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별로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80.306$ (df = 4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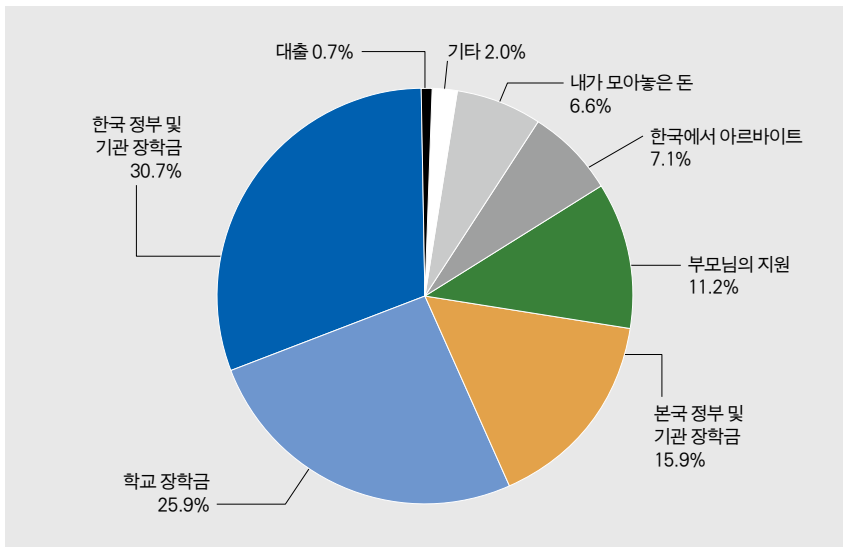


($p < 0.05$). 즉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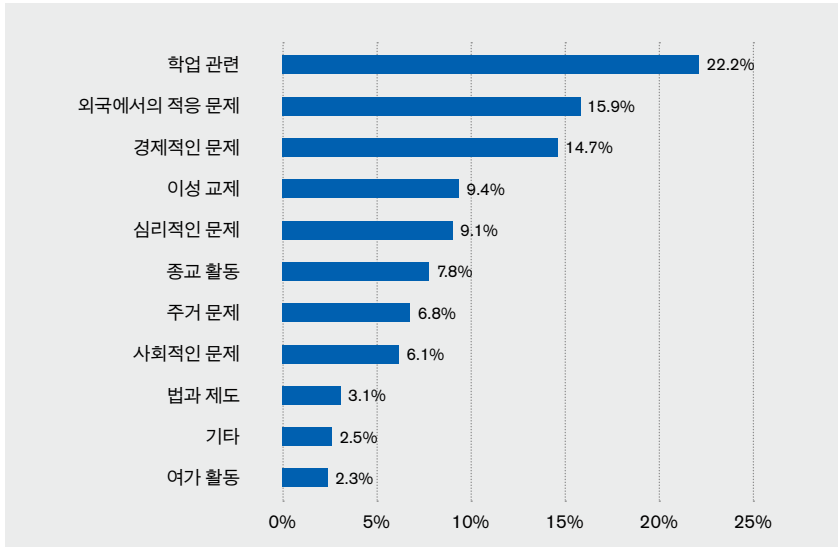
“한국 유학을 위한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한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이 30.7%로 1위, ‘학교 장학금’이 2위이다. 뒤를 이어 본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15.9%), 부모님의 지원(11.2%),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7.1%)의 순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국에서의 유학생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53.7%, ‘매우 그렇다’가 13.4%로 긍정적인 평가가 67.1%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5%에 그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유학생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세안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유학생 생활 중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생 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학업 관련’ 부분이 22.2%로 1위였으며, 뒤를 이어 외국에서의 적응 문제(15.9%), 경제적인 문제(14.7%), 이성교제(9.4%), 심리적인 문제(9.1%), 종교 활동(7.8%) 등을 언급했다.

한국 유학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한국 유학생들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학업 관련’ 부분이 1위인 것이다. 이는 한국 수업의 수준 문제보다는 학교의 지원 부족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대학에서의 영어강좌는 상당히 부족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아세안 학생들은 본국에서 가진 입학설명회나 한국에서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하여 유학을 결심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실제 영어강좌가 많이 개설되지 않아 수업을 듣는데 고충을 겪는다고 답했다.

특히 한 학생은 “언어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연관되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대학들이 홍보 또는 등록 과정에서 수업이 영어로 진행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수업 중에 외국인 학생이 소수일 경우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학생은 “지난 학기 수강하기로 한 공학 수업은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외국인 학생이 2명만 수강신청을 하자 교수님이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걸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도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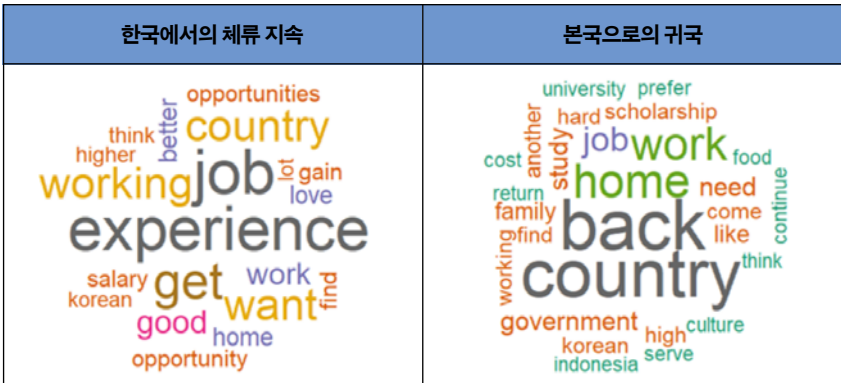
했다. 이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이 요구된다.

한편 일부 학생들의 경우 종교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여 학생들 중 무슬림 학생들은 ‘히잡’을 쓰고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아세안 학생은 얼마 전 히잡을 쓴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당신들 ISIS냐?”고 물어 황당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람들이 계속 뻔히 쳐다봐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학생들이 느끼는 한국 유학에서의 어려움은 유무형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아세안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상당수 학생들이 지적했다. 가까이 알면 친절하고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국 미디어에 자주 나타나는 아세안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연결되어 자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유학 이후의 한국에서 체류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체류 계획이 ‘있다’는 41.6%였고 ‘없다’는 58.3%였다. 유학 이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job’과 ‘working’ 등 ‘취업’과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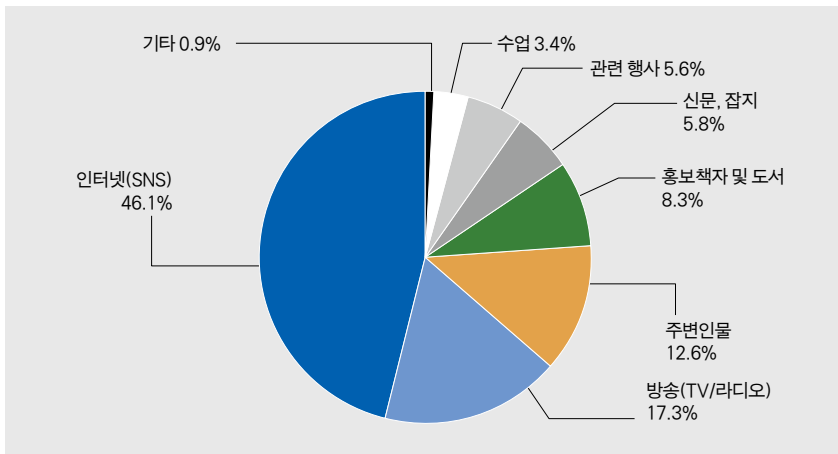
유학 이후 한국에서 체류 계획은?



접적으로 관련된 대답을 많이 했다. 더불어 ‘experience’, ‘opportunities’, ‘salary’ 등 ‘취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답도 많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업’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학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back country’, ‘home’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답변은 귀국 후 취업 등 여러 목적이 관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국으로의 귀향을 자연스럽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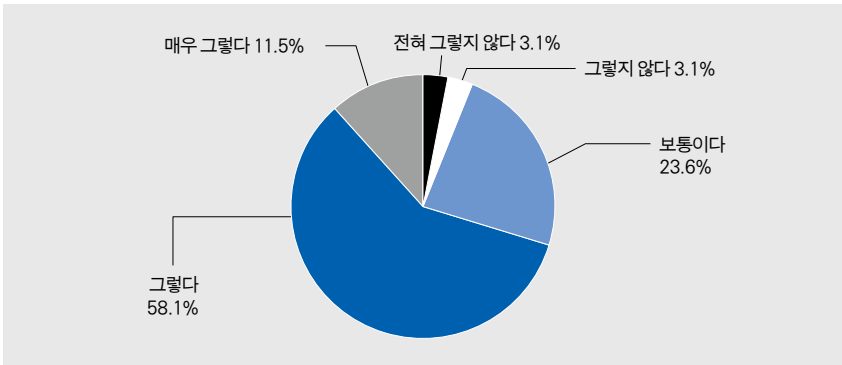
아세안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한국 청년들과 동일하게 인터넷(SNS)이 46.1%로 1위, 뒤를 이어 방송(TV/라디오)(17.3%), 주변인물(12.6%), 홍보책자 및 도서(8.3%) 순으로 대답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청년들에게도 인터넷(SNS)과 방송(TV/라디오)이 가장 가까운 매체임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유학생들이 한국 청년들보다 인터넷(SNS)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방송(TV/라디오), 그리고 한국인 친구 혹은 유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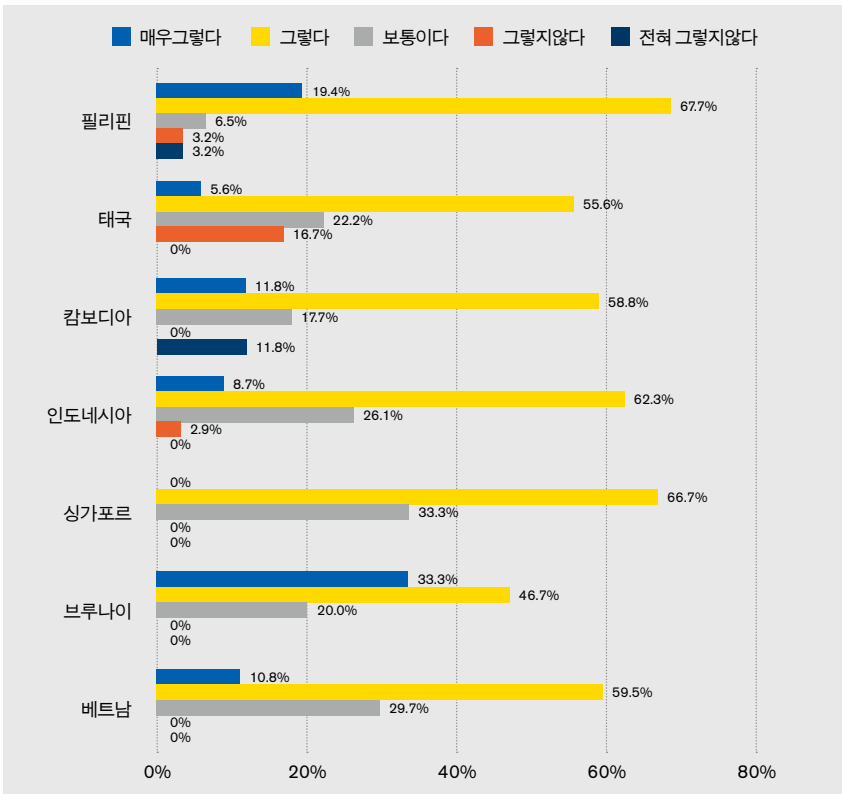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었다. 아세안 청년 69.6%가 ‘그렇다’, 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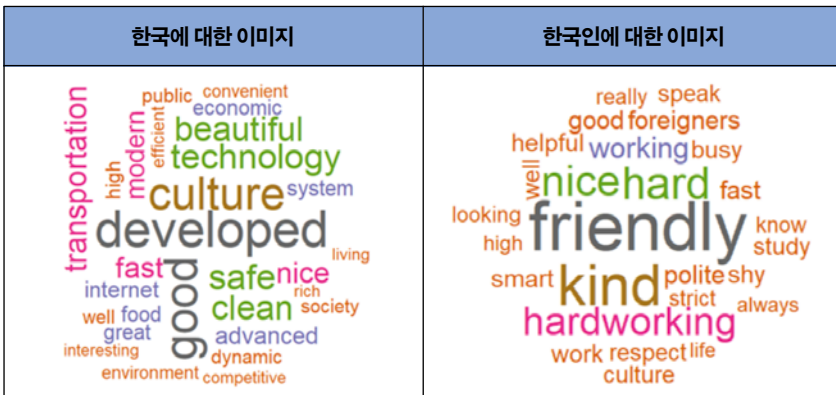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별 비교)



한국에 대한 신뢰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필리핀(87.1%), 브루나이(80.0%)가 평균 7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베트남(70.3%), 캄보디아(70.6%), 인도네시아(71.0%)가 평균과 비슷했고 싱가포르(66.7%), 태국(61.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태국 학생의 16.7%는 한국이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신 국가별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카이검정 결과 $\chi^2=59.136$ ($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라는 질문과 “한국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는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먼저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경제·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미지 등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developed(선진의)’, ‘economic(경제의)’, ‘modern(현대의)’, ‘technology(기술)’ 등의 답변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safe(안전한)’, ‘clean(깨끗한)’, ‘environment(환경)’는 한국의 위생과 치안 등의 사회 환경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culture(문화)’, ‘food(음식)’는 한국음식을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good(좋은)’, ‘great(대단한)’, ‘nice(좋은)’, ‘high(높은)’ 등의 응답을 통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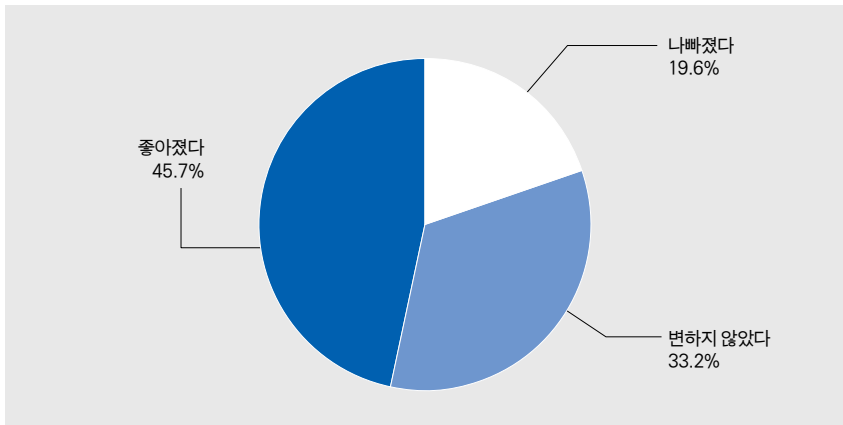


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friendly(우호적인)’, ‘kind(친절한)’, ‘nice(좋은)’ 등 한국인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반면에 한국인의 직업 환경이나 경직성에 대한 부분 역시 언급됐다. ‘Hard working(근면한)’, ‘busy(바쁜)’, ‘fast(빠른)’ 등은 한국인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이미지가 답변으로 나왔고, ‘strict(경직된)’ 등 경직성에 대한 이미지도 나왔다. ‘경직성’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도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인들은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부딪쳐도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오기 전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좋아졌다’는 응답이 45.7%,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2%, ‘나빠졌다’는 19.6%로 나왔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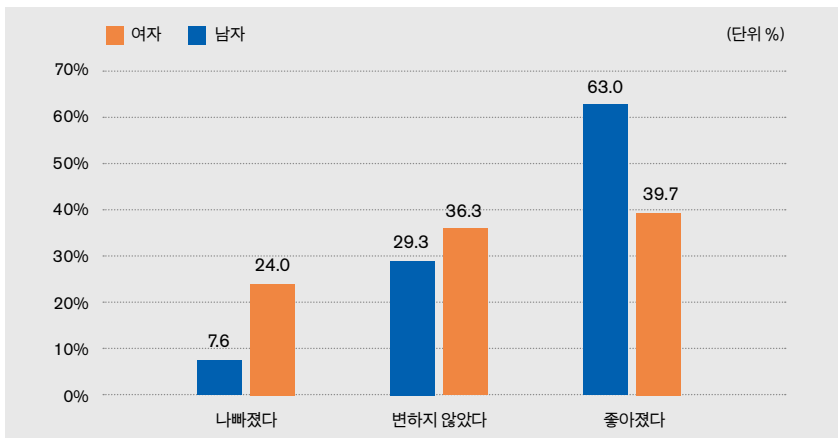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성별과 국가별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서 ‘나빠졌다’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응답은 ‘좋아졌다’가 63.0%, ‘나빠졌다’가 7.6%인데 반해, 여성의 응답은 ‘좋아졌다’가 39.7%, ‘나빠졌다’가 24.0%로 나왔다. 이미지가 ‘좋아

졌다’는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 반면, ‘나빠졌다’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아세안 남성 유학생보다 훨씬 많은 여성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응답한데는 남성위주이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에 대해 아세안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15.895 (p < 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아세안 여성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유학생 중 한명은 자신의 출신국가에 대해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왔어?” 등 차별적인 말을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유학생의 경우에도 아세안 유학생임을 밝히면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유학생의 경우 ‘히잡’을 쓰고 다니는 모습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느낀다고 했다. 기숙사 숙소 배정에서도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한국인들은 여전히 아세안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사람 전체를 가난과 ‘왜소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고 남성은 이주 노동자로, 여성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미지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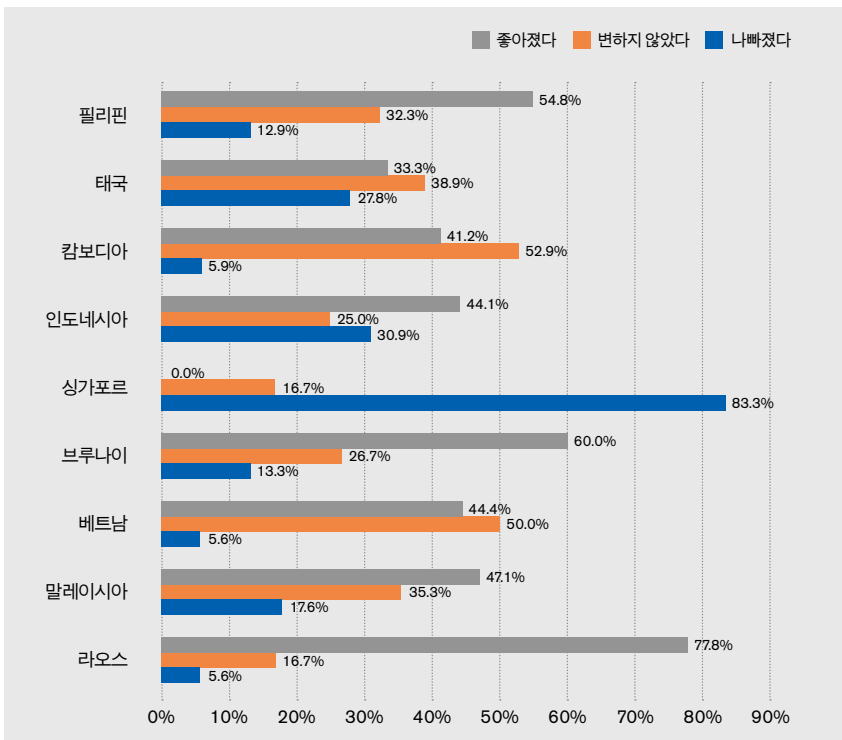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성별 비교)



국민은 동남아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동남아 무슬림, 특히 ‘히잡’ 등을 착용해 외모에 차이가 나는 여성을 상대로 차별을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국가별로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는 5% 정도만 ‘나빠졌다’를 선택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30.9%, 27.8%가 ‘나빠졌다’를 선택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각각 17.6%, 13.3%, 12.9%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 인지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 43.234$ (df = 16)(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나?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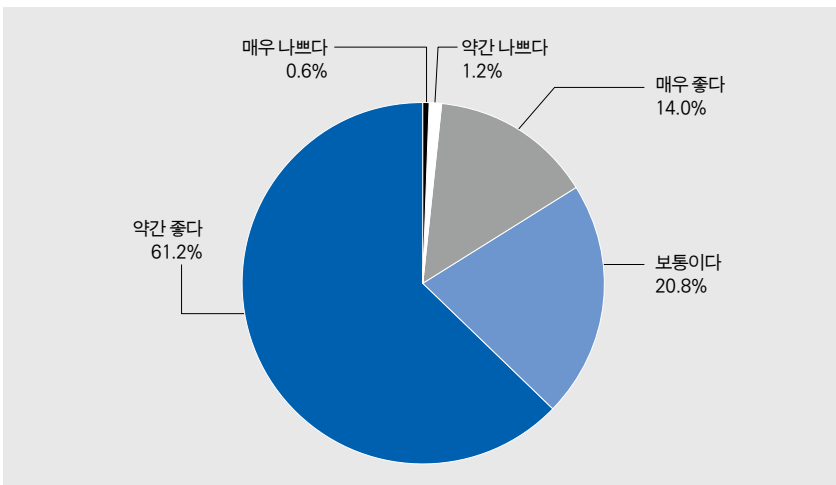


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태국과 필리핀 출신 유학생들의 응답은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는 83.3%가 ‘나빠졌다’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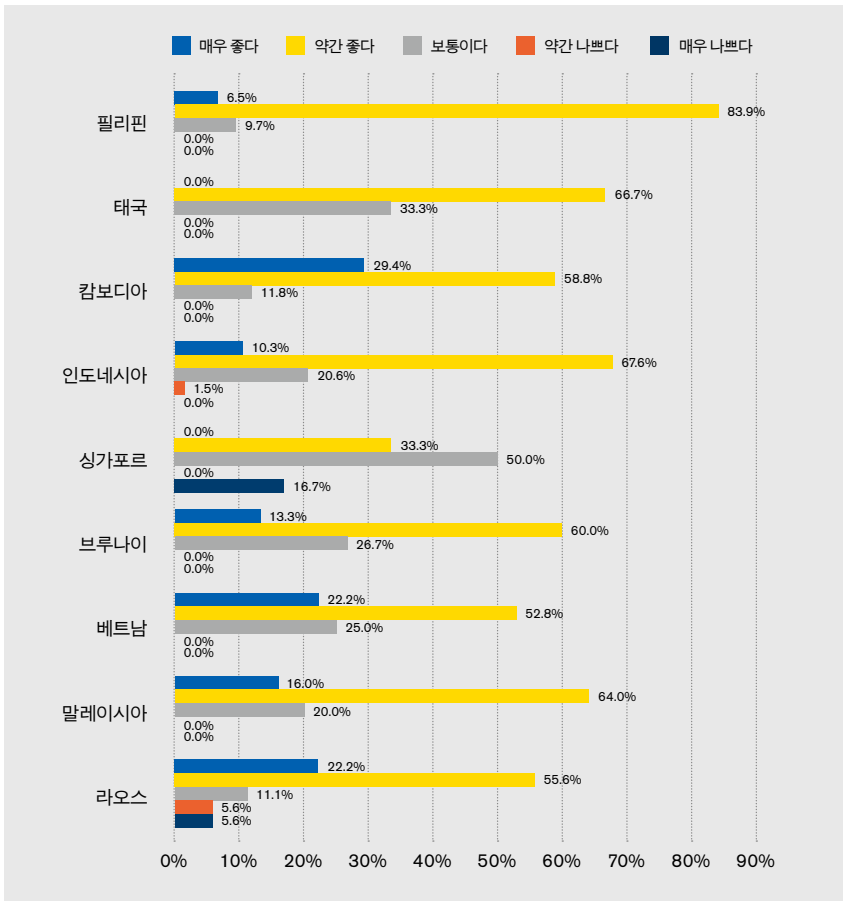
2.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약간 좋다’가 61.2%로 1위였고, ‘매우 좋다’도 14.0%가 나와 긍정적인 답변이(75.2%) 부정적인 답변(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가별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들 중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긍정적 답변의 비율은 각각 80.0%, 75.0%, 73.3%, 88.2%, 66.7%, 90.4%로 나왔다. 특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태국 유학생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각 88.2%, 90.4%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라오스와 싱가포르의 부정적인 답변이 10% 이상 나왔다. 국적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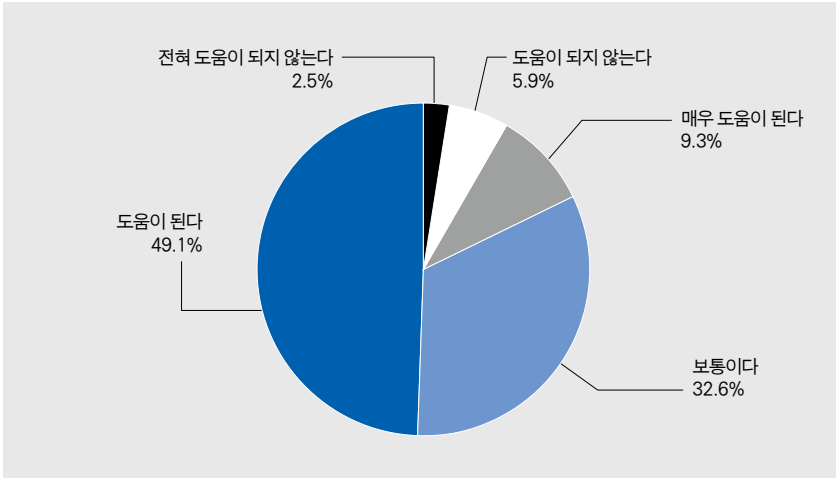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별 비교)



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카이검정을 한 결과 $\chi^2=56.674$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가 49.1%로 1위, ‘보통이다’(32.6%)가 2위, ‘매우 도움이 된다’가 9.3%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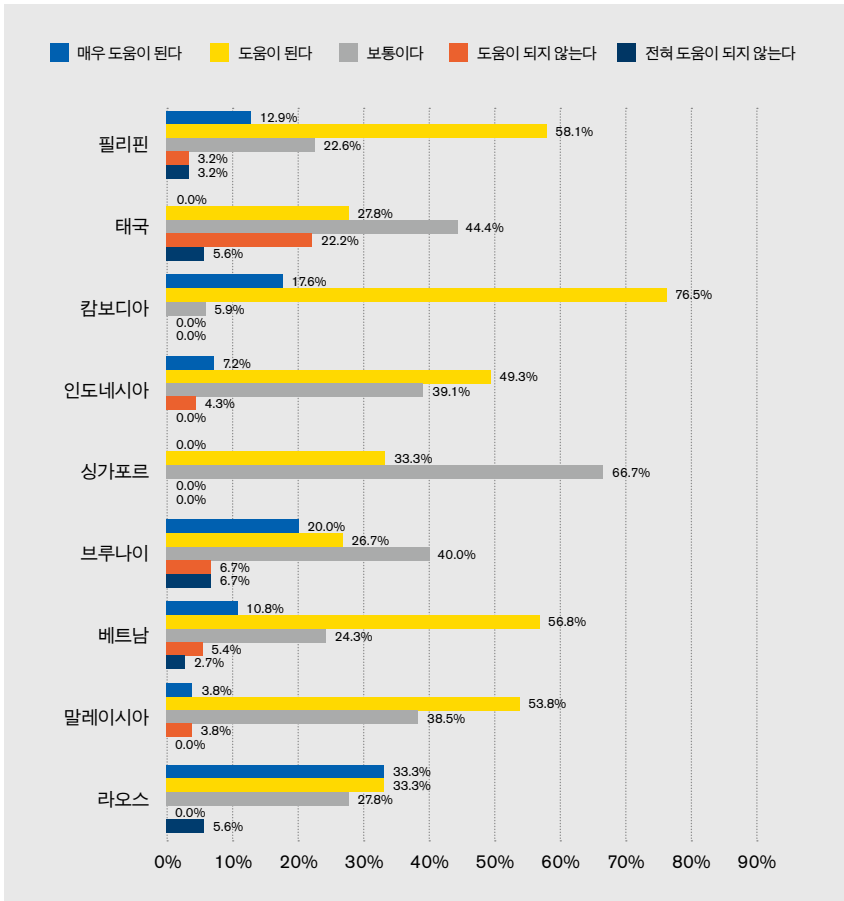
한국은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한국은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국가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특히 캄보디아 유학생들의 경우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94.1%로 높게 나타났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시 60~70% 정도의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나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나라에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태국은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동일하게 27.8%로 나왔다. 한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긍정적인 비율이 각각 33.3%, 46.7%에 그쳤다.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55.924$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아세안 청년들은 경제협력률 20.7%로 1위, 뒤를 이어 관광(15.6%), 이주노동(10.0%), 유학(9.6%), 해외투자(8.9%), 대중문화(7.3%) 순으로 답했다. 경제협력, 이주노동, 해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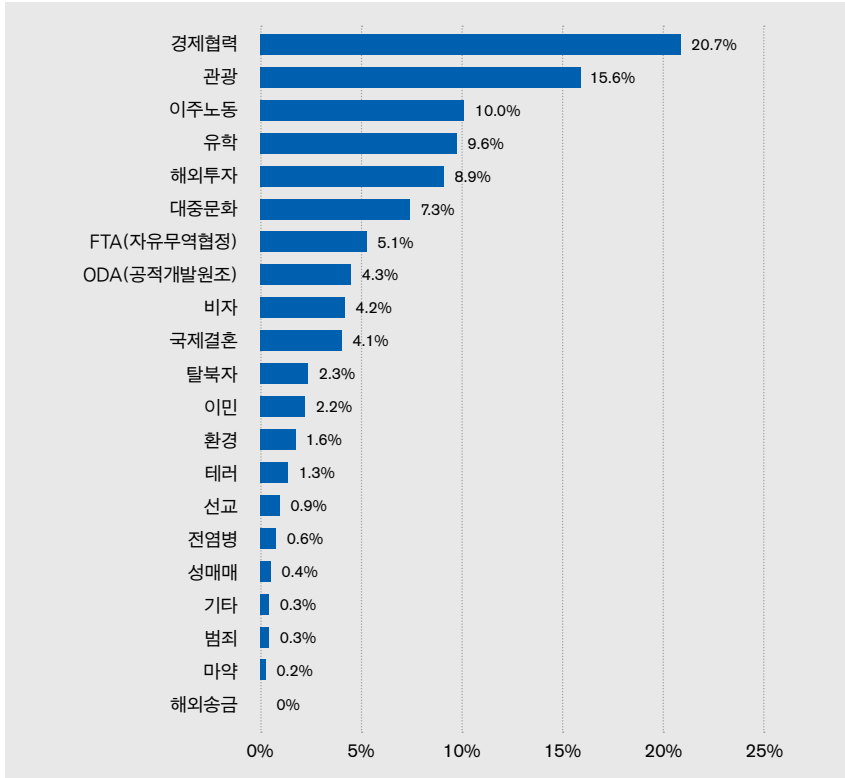
한국은 본인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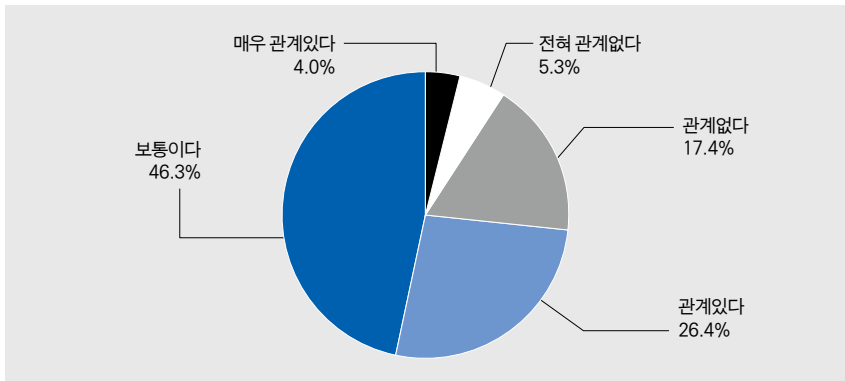
등은 모두 경제협력과 연관이 되어 있고, 관광, 이주노동, 유학은 인적 교류와 관련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6.3%로 1위, ‘관계있다’가 26.4%로 2위이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응답 차이가 나타났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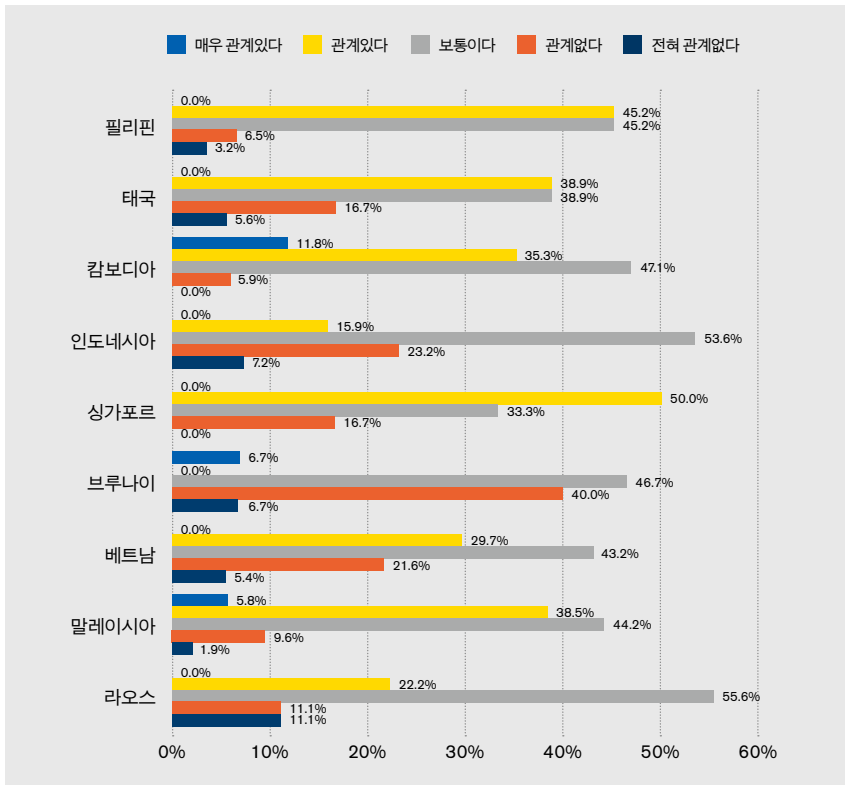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출신의 유학생 사이에서는 ‘관계있다’가 40~50%의 비율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김정남 피살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은 탈북자들의 이동경로가 출신국가인 점이 설문조사의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정남 피살사건이나 탈북자들의 이동경로와 무관한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관계있다’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48.047(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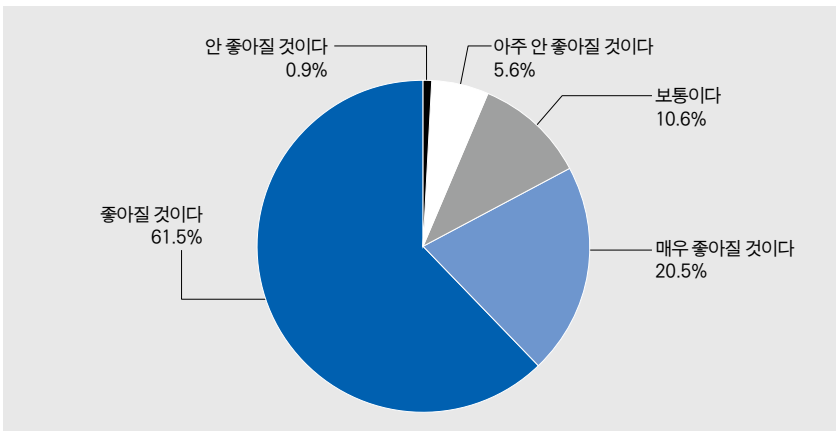


3.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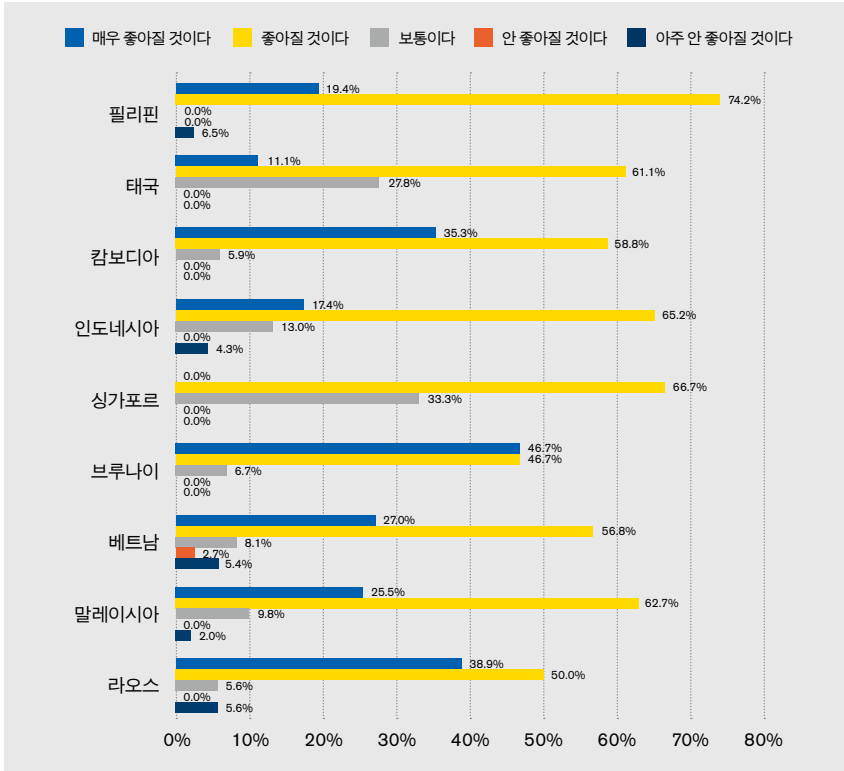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방향은 한-아세안 관계 전망, 아세안 또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먼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세안 유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은 82.0%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은 6.5%에 그쳤다. 이는 현재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묻는 질문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특히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은 긍정적인 답변이 각각 93.4%, 94.1%, 93.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아세안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도 대부분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태국과 싱가포르만이 72.2%, 66.7%로 약간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 유학생들이 향후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와 동아시아 국가들(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국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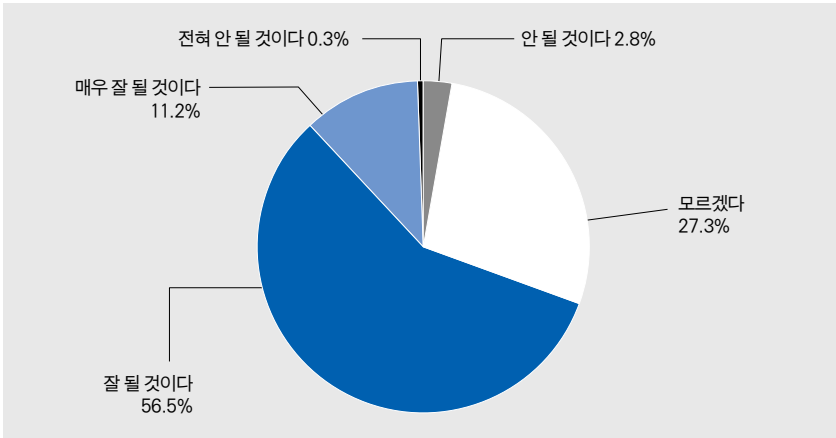
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67.7%로, 부정적 답변 3.1%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처럼 아세안 학생들이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될 것이다’와 ‘매우 잘 될 것이다’를 합친 긍정적 답변이 54.6%로 나왔다. 부정적인 답변은 14.6%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세안 유학생들이 아세안을 넘어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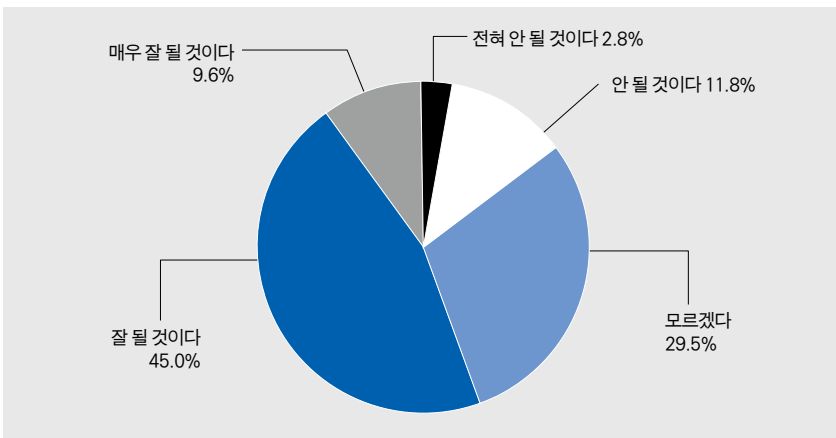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아세안 국가별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다르게 인

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각각 83.3%, 70.3%, 64.7%, 60.0%, 60.0%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싱가포르, 태국은 50.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26.1%로 부정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카이검정한 결과 $\chi^2 = 71.503$ ($p < 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세안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 같은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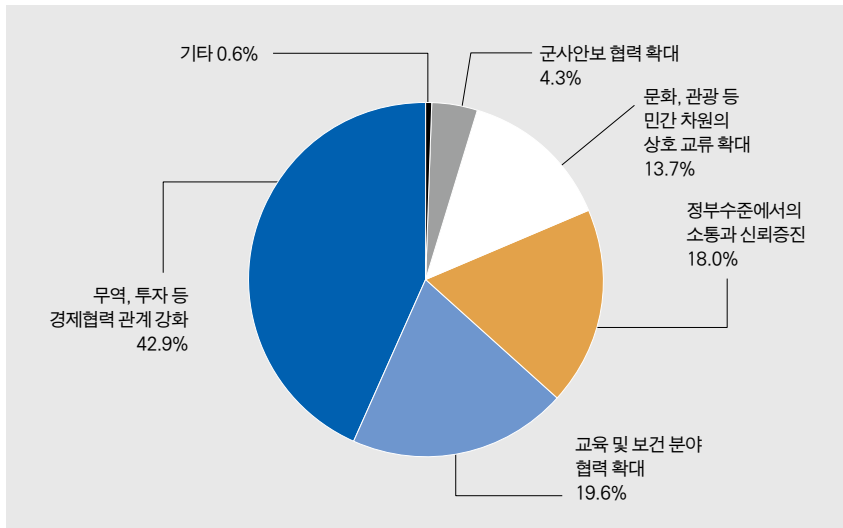


4. 한국 정부와 아세안 정부의 역할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은 무엇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가 42.9%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19.6%),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18%),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확대(13.7%)가 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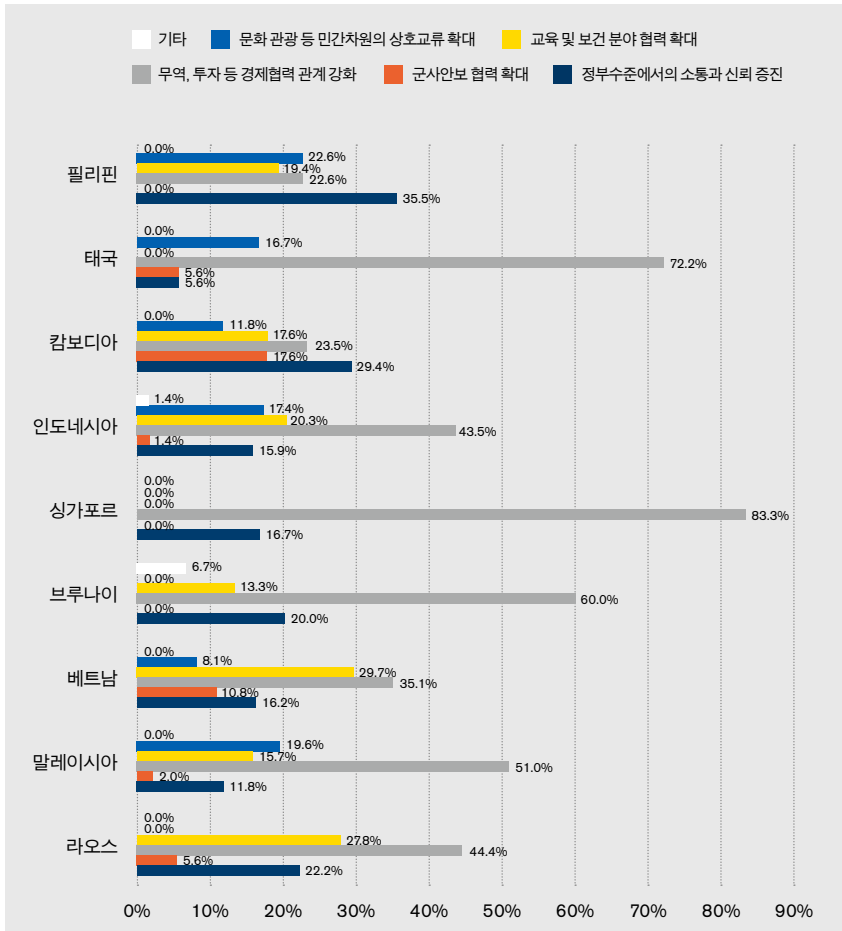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세안 청년들이 국가별로 조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1위로 꼽았다.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83.3%, 72.2%가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보다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

한국과 아세안은 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을 각각 29.4%, 35.5%로 1위로 선택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무역, 투자 등 경제 협력 관계 강화’가 35.1%, ‘정부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이 29.7%로 비슷하게 꼽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정부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을 20.3%로 높게 꼽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적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카이검정 실시 결과 $\chi^2 = 63.820(p < 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관계발전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국가별 비교)





한국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visa(비자)’라고 대답했는데, 현재 아세안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위한 비자 문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도 한국 정부가 개선해 주어야 할 점으로 비자문제를 꼽았다. 그 외에 ‘students(학생)’, ‘scholarship(장학금)’, ‘opportunities(기회)’ 등 장학금과 교육 기회 제공이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유학생들이 한국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혜택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학생은 “한국 정부나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므로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유학생들은 대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유학생 수를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학 내의 국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교육부처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학생이나 교수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 기업이나 정부의 아세안

협력 사업 또한 단순히 한국 경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세안 유학생들이 한국을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문화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한국인이 선입견이나 미디어에 투영된 이미지를 넘어서서 아세안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비교와 시사점

상호 인식 계기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와 ‘방문한 적이 없다’가 7:3의 비율을 보여 아세안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목적지로 한 관광과 여행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자원봉사와 교회활동,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의 영어 어학연수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에 유학 온 아세안 청년들은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한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장학금을 받는 등 경제적 혜택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한 장학금이 가장 컸고 한국 대학교의 장학금이 뒤를 이어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장학금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히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장학금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세안 남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를 첫째로 선택했지만 여학생들은 경제적 이유와 유사한 비율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을 선택하여 여학생들이 감성적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의 통로

한국 청년들과 아세안 청년들 모두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받는 매체로 SNS 등 소셜미디어를 첫째로 꼽아 청년층에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 청년 모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공유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것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청년은 연예인이 출연한 아세안 방문 TV프로그램이, 아세안 청년은 K-Pop과 K-Drama 등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이 상대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인터넷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명 연예인과 이들이 출연하는 TV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과 아세안에 대한 보다 알찬 내용이 전달되고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방송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상대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 청년과 아세안 청년 모두 예상한 범위에서 답변이 나왔다.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에 대해 휴양지와 더운 날씨, 아세안 사람들에 대해 까무잡잡한 피부와 여유로움 같은 객관적 사실과, 빈곤과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상을 연관 지어 판단했다. 더불어 ‘한국 내 동남아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아세안에 대한 인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주여성과 노동자 문제는 한국 청년들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적 편견을 갖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다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세안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부각되었다. 발전, 선진이라는 경제적 이미지와 안전, 청결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는 기술과 문화강국이라는 인상과 겹쳐진다.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유학생이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출신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장점이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우호적이고 친절하다고 말한 반면 열심히 일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는 바쁜 한국인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열정과 빠른 적응을 한국인의 발전 지향의 에너지로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지나친 경쟁에 빠진 한국인을 안타깝게 보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아세안 학생들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한국인을 교육의 결과로 보고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

보다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 학생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차별문제였다. 아세안 남학생들을 이주노동자의 연장선에서 보고, 여학생들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장선에서 보는 일부 한국인의 편견은 무슬림을 테러집단으로 보는 편견과 더불어 아세안 출신 학생들을 크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약속과 달리 영어 강좌가 부

족하거나 일방적으로 폐강되고, 장학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기숙사와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아세안 학생들이 서양 학생들과 비교해 아세안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 정이 많은 한국인들이 고맙지만 한국 미디어에 종종 나타나는 아세안에 대한 편견이 현실에서 차별적 시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사회가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외국은 멀리 하듯 보는 태도는 강대국 앞에서는 위축되는 태도와 함께 고쳐져야 할 사회심리적 과제이다.

한국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를 물어보니 남녀 모두 싱가포르를 1위, 태국과 베트남을 2, 3위로 뽑았다. 아세안 중에서 한국 국민소득의 두 배 가까운 소득을 가진 싱가포르에 대한 인상은 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강하게 남아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관광지와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이 호감을 갖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감이 낮은 것은 경제교역 등 실제적 중요성에 비해 청년들에게는 아직 실감하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성들에게 높은 호감을 받은 라오스 같은 사례는 TV프로그램이 일으킨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인 질문으로 한국에 있는 아세안 학생들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물어본 결과 70%의 학생들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학생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역시 비슷한 비율로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에 대해 갖는 전반적 인상과 유학 생활의 만족도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학생들은 유학생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어려운 점으로는 학업 진행과 적응문제, 경제문제 등을 꼽았다. 설문결과와 인터뷰를 통해 서로 확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교들은 재정적 지원도 부족하지만 영어강좌 개설 등 수업관련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종교 문제, 즉 무슬림으로서의 활동과 히잡 착용문제가 특히 부담스런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IS 관련 테러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심해졌고, 특히 이슬람에 대한 종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 이후 한국 체류와 귀국 여부는 직장과 월급 등 취업 관련 요소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아세안 관계 인식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절반이상의 청년들이 ‘보통’으로 답했다. 이러한 ‘보통’이라는 응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5배 이상 나온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한국 청년들은 한-아세안관계를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청년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남녀 학생들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이 우세했다. 이것 역시 여성의 긍정적 답변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아세안 청년들 역시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청년들에 비해 두 배 이상 한-아세안의 현재 관계를 좋게 보고 있었고, 부정적 답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라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관심이 높으리라고 예상은 됐지만 조사 결과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유학생 중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긍정적 답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라오스와 싱가포르는 부정적 답변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게 나왔다.

한국이 아세안 청년 자신의 출신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출신국가별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긍정적 답변이 94%에 달했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반

면에 태국은 긍정과 부정의 답변이 27.8%로 동일했고,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긍정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출신 학생들은 자신의 국가발전에 한국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전에 진행했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2010년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한국은 발전에 도움이 된다”의 문항에서 높은 긍정률을 보였던 나라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긍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모든 국가에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났지만,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긍정률을 보여주었고, 인도네시아도 평균이상의 긍정률을 보여주었다. 아세안 유학생들의 표본집단이 적어 전체의 인식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전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인식이 아세안 유학생의 인식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청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하나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나라와 또 하나는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나라를 물었다. 한국이 도움을 줄 나라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순서였다. 아세안의 CLMV를 지목한 것은 경제적 지원 등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나라를 학생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순서였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순위에 들어간 것은 교역과 투자 등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학생들도 바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베트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이 베트남을 가장 많이 도와주어야 할 나라이자 한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양면적 인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면서 베트남을 ‘가난한 나라’로 생각하는 한국 청년이 많은 반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면서 ‘시장’으로서의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베트남 유학생의 존재와 과거 베트남 전쟁의 한국 참전 같은 부담도 이런 인식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한국 청년들은 국제결혼, 경제협력, 이주노동, 관광 순으로 답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등을 중요 이슈로 답한 것은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을 인적 교류의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협력 같은 물적 교류 못지않게 한국 청년들에게는 아세안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중요 이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경제협력, 관광, 이주노동, 유학, 해외투자, 대중문화 순으로 답했다. 한국 청년들은 국제결혼을 한국 속에 나타난 중요한 동남아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아세안 청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 이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이주노동, 해외투자 등은 모두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고, 관광, 이주노동, 유학은 인적교류와 관련된다. 한국 청년과 아세안 청년 모두에게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청년들에게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아세안의 영향력을 물어본 결과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더 많았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은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차지하는 경험과 역량에 대해 아직 한국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상황에 아세안이 중재자 내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한국외교정책의 몫이라고 하겠다. 아세안 학생들은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 본 결과는 '보통' 정도로 무관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응답이 차이가 났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은 '관계가 있다'는 대답이 40~50%의 비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북한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전망

한국 청년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인 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아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매우 발전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 보다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출신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아세안 국가의 유학생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발전할 것임을 낙관하고 있었다. 미래를 짚어질 청년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매우 희망적인 신호이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동아시아 국가들(한국/중국/일본/아세안)의 지역공동체 형성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 청년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차이는 약 10%에 불과했다. 반면에 아세안 청년들은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3배 이상 나왔다. 이를 통해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남성보다 여성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아세안 청년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아세안 국가별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출신 학생들이 매우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 모두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상호 연관성을 공동체 건설의 촉진 요인으로 지적했고,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역사적, 영토적 분쟁과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를 제약 요인으로 답했다.

한국 청년들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꼽았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신뢰 증진, 민간 차원의 문화 및 관광 분야 협력, 교육과 보건 분야 협력 순으로 답했다. 아세안 청년들 역시 경제

협력 강화를 첫째로 선택하면서 거의 동일한 순서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경제협력 강화 및 교육과 문화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청년들이 인적 교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요구한 것은 청년들의 아세안 진출 희망과 직결되어 있다. 인적교류 관련 제도적 기반과 지원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아세안 학생들은 자신들의 여건상 한국 정부에 비자문제의 해결과 정부 장학금과 교육 기회 확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5

인식조사의 의의 및 제언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는 상대에 대한 생각부터 아는 것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초석이라고 판단하고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한 결과는 많은 사실을 발견하고 또한 확인시켜 주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과 함께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상대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세안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서 겪은 차별 같은 부정적인 면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양측 청년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건강하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번 조사는 이런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그대로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인식 조사에서 제기된 과제를 식별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 수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식도에 따라 노력의 결과는 평가받아야 된다. 상생 협력을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과 아세안은 상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최소한 2~3년마다 한 번씩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인식 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축적된 인식조사 결과는 정확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호 인식조사는 중요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면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조사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진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부록

- 한국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지
- 아세안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지
- 한국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결과
- 아세안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결과

한국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동남아연구소(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는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의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국민들과 한국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강화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967년 출범한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기구로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아세안(ASEAN)은 종종 동남아 지역을 상징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을 골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응답은 오직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만을 위해 이용되며 설문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동남아연구소(kiseasadm@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동남아(아세안)의 어느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복수응답)

- ① 라오스 ② 말레이시아 ③ 미얀마 ④ 베트남 ⑤ 브루나이
- ⑥ 싱가포르 ⑦ 인도네시아 ⑧ 캄보디아 ⑨ 태국 ⑩ 필리핀
- ⑪ 방문 국가 없음 (→3번으로)

2. 동남아(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 ① 관광 및 여행 ② 어학연수 ③ 유학 ④ 친지/친구 집 방문
- ⑤ 가족 체류 ⑥ 사업 ⑦ 자원봉사 ⑧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
- ⑨ 기타()

3. 동남아(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2개 선택)

- ① 신문, 잡지 ② 주변 인물 ③ 방송(TV/라디오) ④ 인터넷(SNS)
- ⑤ 홍보책자 및 도서 ⑥ 수업 ⑦ 관련 행사 ⑧ 기타()

4.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의 음식을 좋아합니까?

- ① 라오스 ② 말레이시아 ③ 미얀마 ④ 베트남 ⑤ 브루나이
- ⑥ 싱가포르 ⑦ 인도네시아 ⑧ 캄보디아 ⑨ 태국 ⑩ 필리핀
- ⑪ 좋아하지 않음

5.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순서대로 3개 선택) (, ,)

- ① 라오스 ② 말레이시아 ③ 미얀마 ④ 베트남 ⑤ 브루나이
- ⑥ 싱가포르 ⑦ 인도네시아 ⑧ 캄보디아 ⑨ 태국 ⑩ 필리핀

6. 현재 동남아(아세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주변에서 실제 동남아(아세안) 출신 사람을 자주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동남아(아세안) 10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9. 동남아(아세안)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10. 한국과 동남아(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약간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다 ⑤ 매우 좋다

11. 동남아(아세안)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라오스 ② 말레이시아 ③ 미얀마 ④ 베트남 ⑤ 브루나이
⑥ 싱가포르 ⑦ 인도네시아 ⑧ 캄보디아 ⑨ 태국 ⑩ 필리핀

13.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라오스 ② 말레이시아 ③ 미얀마 ④ 베트남 ⑤ 브루나이
⑥ 싱가포르 ⑦ 인도네시아 ⑧ 캄보디아 ⑨ 태국 ⑩ 필리핀

14. 다음 중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3가지 선택)

- 경제협력, 이주노동, 탈북자, 관광, 마약, 국제결혼, ODA(공적개발원조),
- 선교 해외송금, 테러, 해외투자, 유학, 범죄, 성매매, 비자, 전염병,
- FTA(자유무역협정), 대중문화, 환경, 이민, 기타 ()

15. 동남아(아세안) 사람이 한국의 어떤 분야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 ① 민주주의 ② 경제발전 ③ 한류문화 (K-Pop, K-Drama, K-Beauty)
- ④ 시민사회 ⑤ 교육수준 ⑥ 의료 및 보건 ⑦ IT 분야 (스마트폰, 가전기기)
- ⑧ 사회복지 ⑨ 관광(계절, 음식) ⑩ 기타 ()

16. 동남아(아세안)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앞으로 한국과 동남아(아세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② 안 좋아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18.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국가가 무엇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
- ② 군사안보 협력 확대
- ③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
- ④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
- ⑤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 ⑥ 기타 ()

19.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19-1번으로) ② 모른다 (→ 20번으로)

19-1)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안 될 것이다 ② 안 될 것이다 ③ 모르겠다
④ 잘 될 것이다 ⑤ 매우 잘 될 것이다

20. 동아시아 국가(한, 중, 일, 동남아/아세안)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안 될 것이다 (→ 20-1번으로) ② 안 될 것이다 (→ 20-1번으로)
③ 모르겠다 (→ 21번으로) ④ 잘 될 것이다 (→ 20-2번으로)
⑤ 매우 잘 될 것이다 (→ 20-2번으로)

20-1)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체제가 다르다
②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③ 나라 간에 역사분쟁, 영토분쟁이 심하다
④ 문화적 차이가 크다
⑤ 기타 ()

20-2)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종족적으로 유사하다
② 지리적으로 가깝다
③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④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
⑤ 기타 ()

21. 동남아(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안 될 것이다 ② 안 될 것이다 ③ 모르겠다
- ④ 잘 될 것이다 ⑤ 매우 잘 될 것이다

22.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22-1번으로) ② 모른다 (→ 필수응답 항목으로)

22-1) 한-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인식 제고 ② 무역&투자 촉진 ③ 문화관광
- ④ 정보자료 제공 ⑤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⑥ 기타 ()

〈필수응답 항목〉

A. 성별 1. 남성 2. 여성

B. 출생년도

C. 학력 1. 대학교 학년 재학 2. 대학교 졸업 (석사/박사과정) 재학 4.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졸업

D. 전공 1. 인문(문학, 어학, 철학, 역사 등) 2. 사회(정치, 경제, 경영, 사회, 심리, 법, 언론 등) 3. 공학 및 자연과학(공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4. 예체능(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5. 의학 및 약학 6. 교육학 7. 기타 ()

※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동남아연구소(kieasadm@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조사일

조사장소

아세안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지

한국에 대한 아세안 청년의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동남아연구소(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는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 대한 동남아시아 청년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아세안 국민들과 한국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강화하여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을 골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5~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응답은 오직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만을 위해 이용되며 설문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동남아연구소(kiscasadm@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년 ()월

2. 한국 유학을 위한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한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
- ② 본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
- ③ 학교 장학금
- ④ 내가 모아놓은 돈
- ⑤ 부모님의 지원
- ⑥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 ⑦ 한국 혹은 출신국가에서의 대출 ⑧ 기타()

3. 한국 유학생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학업 관련 (성적, 대학교육 여건 등)
- ② 법과 제도 관련 (비자 등)
- ③ 경제적인 문제 (학비, 생활비 등)
- ④ 심리적인 문제 (외로움, 그리움 등)
- ⑤ 사회적인 문제 (차별, 편견, 따돌림 등)
- ⑥ 외국에서의 적응 문제 (언어, 음식, 문화적 차이)
- ⑦ 주거 문제 (구하기 어려움, 비용,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건 등)
- ⑧ 이성교제
- ⑨ 종교활동
- ⑩ 여가활동
- ⑪ 기타()

4.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로
- ②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등의 권유로
- ③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
- ④ 전공 등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 ⑤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⑥ 기타 ()

6. 유학 이후 한국에서의 체류 계획은?

- ① 있다 ② 없다

6-1)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선택)

- ① 신문, 잡지 ② 주변 인물 ③ 방송(TV/라디오) ④ 인터넷(SNS)
- ⑤ 홍보책자 및 도서 ⑥ 수업 ⑦ 관련 행사 ⑧ 기타 ()

8.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9.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10.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한국인이 본인의 출신국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아주 잘 안다
12. 한국은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13.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관계없다 ② 관계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계있다 ⑤ 매우 관계있다
14. 한국의 대중문화(한류)를 좋아하십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좋아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한다 ⑤ 매우 좋아한다
15. 본인의 출신국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인기가 있습니까?
① 전혀 인기가 없다 ② 인기가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인기가 있다 ⑤ 매우 인기가 있다
16. 한국제품을 좋아하십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좋아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한다 ⑤ 매우 좋아한다
17.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① 나빠졌다 ② 변하지 않았다 ③ 좋아졌다
18.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약간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다 ⑤ 매우 좋다

19. 다음 중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3가지 선택)

경제협력, 이주노동, 탈북자, 관광, 마약, 국제결혼, ODA(공적개발원조)
 선교, 해외송금, 테러, 해외투자, 유학, 범죄, 성매매, 비자, 전염병
 FTA(자유무역협정), 대중문화, 환경, 이민, 기타 ()

20. 한국의 어떤 분야가 아세안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민주주의 ② 경제발전 ③ 한류문화(K-Pop, K-Drama, K-Beauty)
 ④ 시민사회 ⑤ 교육수준 ⑥ 의료 및 보건
 ⑦ IT 분야(스마트폰, 가전기기) ⑧ 사회복지
 ⑨ 관광(계절, 음식) ⑩ 기타 ()

21. 아세안의 어떤 분야가 한국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① 천연자원 ② 노동력 ③ 상품시장 ④ 문화유산
 ⑤ 자연환경 ⑥ 물가 ⑦ 투자 ⑧ 어학 및 유학
 ⑨ 이민 ⑩ 기타 ()

22.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② 안 좋아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3.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
- ② 군사안보 협력 확대
- ③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
- ④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
- ⑤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 ⑥ 기타 ()

24.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안 될 것이다 ② 안 될 것이다 ③ 모르겠다
- ④ 잘 될 것이다 ⑤ 매우 잘 될 것이다

25. 동아시아 국가(한, 중, 일, 아세안)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안 될 것이다 (→ 25-1번으로) ② 안 될 것이다 (→ 25-1번으로)
- ③ 모르겠다 (→ 26번으로) ④ 잘 될 것이다 (→ 25-2번으로)
- ⑤ 매우 잘 될 것이다 (→ 25-2번으로)

25-1).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체제가 다르다
- ②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 ③ 나라 간에 역사분쟁, 영토분쟁이 심하다
- ④ 문화적 차이가 크다
- ⑤ 기타 ()

25-2).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종족적으로 유사하다
- ② 지리적으로 가깝다
- ③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④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
- ⑤ 기타 ()

26. 한국인 혹은 한국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27.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27-1번으로)
- ② 모른다 (→ 필수응답항목으로)

27-1) 한-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호인식 제고
- ② 무역&투자 촉진
- ③ 문화관광
- ④ 정보자료 제공
- ⑤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 ⑥ 기타 ()

〈필수응답 항목〉

A. 성별 1. 남성 2. 여성

B. 출생년도

C. 출신국가

D. 현재 다음 중 어떤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① 어학과정 ② 학부과정(대학1~4학년) ③ 석사과정 ④ 박사과정 ⑤ 기타()

E. 현재 다음 중 어떤 전공분야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① 인문(문학, 어학, 철학, 역사 등) ② 사회(정치, 경제, 경영, 사회, 심리, 법, 언론 등) ③ 공학(기계, 전자, 컴퓨터, 건축, 재료 등) ④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⑤ 예체능(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⑥ 의학 및 약학 ⑦ 교육학 ⑧ 기타()

※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동남아연구소(kicasadm@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자

조사일

조사장소

한국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결과

Q1. 동남아(아세안)의 어느 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복수응답)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라오스	14	2.0%	22	2.6%	37	2.4%
말레이시아	46	6.7%	53	6.2%	99	6.4%
미얀마	17	2.5%	13	1.5%	30	1.9%
베트남	59	8.6%	82	9.6%	142	9.2%
브루나이	1	0.1%	5	0.6%	6	0.4%
싱가포르	59	8.6%	89	10.4%	148	9.6%
인도네시아	31	4.5%	39	4.6%	70	4.5%
캄보디아	48	7.0%	54	6.3%	103	6.7%
태국	96	14.0%	115	13.5%	211	13.6%
필리핀	99	14.4%	100	11.7%	200	12.9%
방문 국가 없음	218	31.7%	280	32.9%	501	32.4%

Q2. 동남아(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응답)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관광 및 여행	189	59.6%	240	64.5%	431	62.4%
어학연수	27	8.5%	33	8.9%	60	8.7%
유학	10	3.2%	6	1.6%	16	2.3%
친지/친구 집 방문	6	1.9%	7	1.9%	13	1.9%
가족 체류	14	4.4%	10	2.7%	24	3.5%
사업	3	0.9%	1	0.3%	4	0.6%
자원봉사	34	10.7%	44	11.8%	78	11.3%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	16	5.0%	18	4.8%	34	4.9%
기타	18	5.7%	13	3.5%	31	4.5%

Q3. 동남아(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십니까? (2개 선택)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문, 잡지	74	9.1%	47	4.7%	123	6.8%
주변 인물	114	14.0%	121	12.2%	235	12.9%
방송(TV/라디오)	205	25.2%	254	25.6%	461	25.4%
인터넷(SNS)	295	36.2%	370	37.3%	668	36.8%
홍보책자 및 도서	42	5.2%	57	5.7%	99	5.5%
수업	71	8.7%	127	12.8%	200	11.0%
관련 행사	8	1.0%	11	1.1%	19	1.0%
기타	6	0.7%	5	0.5%	11	0.6%

Q4.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의 음식을 좋아합니까? (복수응답)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라오스	6	1.3%	9	1.6%	15	1.5%
말레이시아	13	2.9%	7	1.3%	20	2.0%
미얀마	3	0.7%	0	0.0%	3	0.3%
베트남	153	34.2%	223	40.5%	376	37.7%
브루나이	1	0.2%	3	0.5%	4	0.4%
싱가포르	24	5.4%	38	6.9%	62	6.2%
인도네시아	20	4.5%	17	3.1%	37	3.7%
캄보디아	3	0.7%	4	0.7%	7	0.7%
태국	95	21.3%	116	21.1%	211	21.1%
필리핀	18	4.0%	14	2.5%	32	3.2%
좋아 하지 않음	111	24.8%	120	21.8%	231	23.1%

Q5.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순서대로 3개 선택)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라오스	94	7.1%	203	12.5%	299	10.1%
말레이시아	101	7.7%	94	5.8%	196	6.6%
미얀마	40	3.0%	25	1.5%	65	2.2%
베트남	212	16.1%	250	15.4%	462	15.7%
브루나이	27	2.1%	30	1.9%	57	1.9%
싱가포르	315	23.9%	427	26.3%	745	25.3%
인도네시아	99	7.5%	79	4.9%	180	6.1%
캄보디아	54	4.1%	78	4.8%	132	4.5%
태국	234	17.8%	294	18.1%	530	18.0%
필리핀	140	10.6%	141	8.7%	283	9.6%

Q6. 현재 동남아(아세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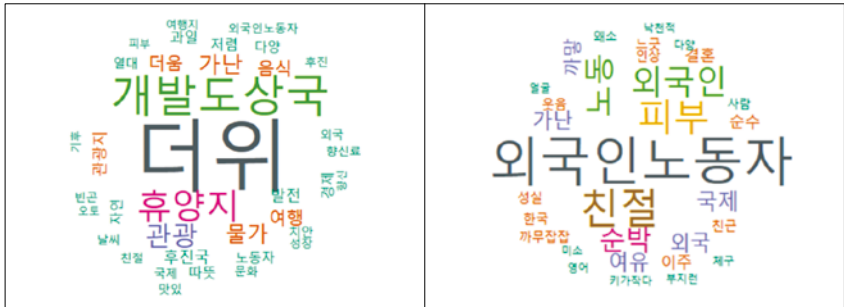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0	6.7%	22	4.0%	52	5.2%
그렇지 않다	99	22.1%	107	19.4%	204	20.6%
보통이다	194	43.4%	236	42.8%	427	43.0%
그렇다	101	22.6%	149	27.0%	249	25.1%
매우 그렇다	23	5.1%	37	6.7%	60	6.0%

Q7. 주변에서 실제 동남아(아세안) 출신 사람을 자주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9	8.7%	58	10.5%	58	9.7%
그렇지 않다	160	35.8%	170	30.9%	170	33.1%
보통이다	151	33.8%	182	33.0%	182	33.4%
그렇다	84	18.8%	123	22.3%	123	20.7%
매우 그렇다	13	2.9%	18	3.3%	18	3.1%

Q8. 동남아(아세안) 10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Q9. 동남아(아세안)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Q10. 한국과 동남아(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나쁘다	3	0.7%	0	0.0%	3	0.3%
약간 나쁘다	21	4.7%	39	7.1%	60	6.0%
보통이다	260	58.4%	355	64.5%	615	61.8%
약간 좋다	139	31.2%	139	25.3%	278	27.9%
매우 좋다	22	4.9%	17	3.1%	39	3.9%

Q11. 동남아(아세안)는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1.6%	1	0.2%	8	0.8%
그렇지 않다	18	4.0%	28	5.1%	46	4.6%
보통이다	102	22.9%	132	24.0%	234	23.5%
그렇다	225	50.6%	299	54.5%	524	52.7%
매우 그렇다	93	20.9%	89	16.2%	182	18.3%

Q12.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라오스	37	8.4%	38	7.0%	75	7.7%
말레이시아	22	5.0%	32	5.9%	54	5.5%
미얀마	58	13.2%	98	18.0%	155	15.9%
베트남	126	28.6%	117	21.5%	242	24.8%
브루나이	23	5.2%	20	3.7%	43	4.4%
싱가포르	19	4.3%	13	2.4%	32	3.3%
인도네시아	29	6.6%	22	4.1%	51	5.2%
캄보디아	53	12.0%	107	19.7%	156	16.0%
태국	15	3.4%	16	2.9%	31	3.2%
필리핀	58	13.2%	80	14.7%	138	14.1%

Q13. 다음 동남아(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라오스	3	0.7%	9	1.7%	12	1.2%
말레이시아	18	4.1%	33	6.1%	51	5.2%
미얀마	4	0.9%	1	0.2%	5	0.5%
베트남	105	23.8%	122	22.4%	227	23.0%
브루나이	12	2.7%	3	0.6%	15	1.5%
싱가포르	159	36.1%	211	38.8%	370	37.6%
인도네시아	49	11.1%	53	9.7%	102	10.4%
캄보디아	6	1.4%	1	0.2%	7	0.7%
태국	33	7.5%	54	9.9%	87	8.8%
필리핀	52	11.8%	57	10.5%	109	11.1%

Q14. 다음 중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협력	195	15.0%	214	13.2%	410	14.0%
이주노동	135	10.4%	239	14.8%	377	12.9%
탈북자	25	1.9%	15	0.9%	40	1.4%
관광	154	11.8%	175	10.8%	329	11.2%
마약	27	2.1%	30	1.9%	57	1.9%
국제결혼	170	13.1%	292	18.1%	464	15.8%
ODA(공적개발원조)	59	4.5%	86	5.3%	145	5.0%
선교	29	2.2%	31	1.9%	61	2.1%
해외송금	0	0%	0	0%	0	0%
테러	21	1.6%	28	1.7%	49	1.7%
해외투자	53	4.1%	53	3.3%	106	3.6%
유학	44	3.4%	41	2.5%	85	2.9%
범죄	67	5.1%	68	4.2%	135	4.6%
성매매	78	6.0%	109	6.7%	187	6.4%
비자	10	0.8%	10	0.6%	20	0.7%
전염병	20	1.5%	22	1.4%	43	1.5%
FTA(자유무역협정)	77	5.9%	67	4.1%	144	4.9%
대중문화	87	6.7%	78	4.8%	166	5.7%
환경	26	2.0%	21	1.3%	49	1.7%
이민	24	1.8%	34	2.1%	58	2.0%
기타	0	0%	3	0.2%	3	0.1%

Q15. 동남아(아세안) 사람이 한국의 어떤 분야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민주주의	35	4.0%	31	2.9%	67	3.4%
경제발전	181	20.5%	185	17.1%	366	18.6%
한류문화 (K_pop, K- 드라마, K-뷰티)	349	39.6%	450	41.6%	802	40.6%
시민사회	12	1.4%	10	0.9%	23	1.2%
교육수준	40	4.5%	50	4.6%	90	4.6%
의료 및 보건	78	8.8%	108	10.0%	187	9.5%
IT 분야 (스마트폰, 가전기기)	135	15.3%	172	15.9%	309	15.7%
사회복지	15	1.7%	24	2.2%	39	2.0%
관광(계절, 음식)	36	4.1%	52	4.8%	89	4.5%
기타	1	0.1%	0	0.0%	1	0.1%

Q16. 동남아(아세안)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3	9.6%	31	5.6%	74	7.4%
그렇지 않다	165	36.9%	190	34.4%	355	35.5%
보통이다	134	30.0%	215	38.9%	349	34.9%
그렇다	95	21.3%	99	17.9%	194	19.4%
매우 그렇다	10	2.2%	17	3.1%	27	2.7%

Q17. 앞으로 한국과 동남아(아세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2	0.6%	3	0.6%	5	0.5%
안 좋아질 것이다	9	1.8%	10	1.2%	19	1.9%
보통이다	149	31.9%	185	42.3%	334	33.4%
좋아질 것이다	262	60.4%	326	53.0%	588	59.1%
매우 좋아질 것이다	25	5.4%	25	3.0%	50	5.1%

Q18.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국가가 무엇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	100	22.5%	159	28.9%	259	26.0%
군사안보 협력 확대	14	3.1%	16	2.9%	30	3.0%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	175	39.3%	182	33.0%	357	35.8%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	54	12.1%	81	14.7%	135	13.6%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98	22.0%	105	19.1%	203	20.4%
기타	4	0.9%	8	1.5%	12	1.2%

Q19.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182	40.7%	226	41.4%	408	41.1%
모른다	265	59.3%	320	58.6%	585	58.9%

Q19-1.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안 될 것이다	5	2.5%	0	0.0%	5	1.1%
안 될 것이다	22	11.0%	22	9.3%	44	10.1%
모르겠다	69	34.5%	78	32.9%	147	33.6%
잘 될 것이다	94	47.0%	129	54.4%	223	51.0%
매우 잘 될 것이다	10	5.0%	8	3.4%	18	4.1%

Q20. 동아시아 국가(한, 중, 일, 아세안)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안 될 것이다	23	5.7%	9	1.8%	32	3.5%
안 될 것이다	93	23.0%	89	17.5%	182	19.9%
모르겠다	158	39.1%	210	41.2%	368	40.3%
잘 될 것이다	117	29.0%	188	36.9%	305	33.4%
매우 잘 될 것이다	13	3.2%	14	2.7%	27	3.0%

Q20-1.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체제가 다르다	13	10.1%	12	11.1%	25	10.5%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40	31.0%	32	29.6%	72	30.4%
나라 간에 역사분쟁, 영토분쟁이 심하다	53	41.1%	43	39.8%	96	40.5%
문화적 차이가 크다	18	14.0%	15	13.9%	33	13.9%
기타	5	3.9%	6	5.6%	11	4.6%

Q20-2.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종족적으로 유사하다	10	6.7%	12	5.5%	22	6.0%
지리적으로 가깝다	50	33.3%	86	39.3%	136	36.9%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8	38.7%	75	34.2%	133	36.0%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	27	18.0%	43	19.6%	70	19.0%
기타	5	3.3%	3	1.4%	8	2.2%

Q21. 동남아(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안 될 것이다	14	3.2%	10	1.8%	24	2.4%
안 될 것이다	131	30.0%	151	27.6%	282	28.7%
모르겠다	116	26.6%	187	34.2%	303	30.8%
잘 될 것이다	147	33.7%	176	32.2%	323	32.9%
매우 잘 될 것이다	28	6.4%	23	4.2%	51	5.2%

Q22. 한-아세안 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49	11.1%	78	14.3%	127	12.9%
모른다	392	88.9%	469	85.7%	855	87.1%

Q22-1. 한-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호인식 제고	11	18.3%	29	30.9%	40	26.0%
무역&투자 촉진	15	25.0%	11	11.7%	26	16.9%
문화관광	8	13.3%	10	10.6%	18	11.7%
정보자료 제공	10	16.7%	8	8.5%	18	11.7%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16	26.7%	35	37.2%	51	33.1%
기타	0	0.0%	1	1.1%	1	0.6%

아세안 청년의 인식조사 설문결과

Q1. 한국에서 얼마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 이하	38	40.9%	81	44.8%	134	41.6%
1년 - 2년	19	20.4%	39	21.5%	75	23.3%
2년 - 3년	17	18.3%	33	18.2%	54	16.8%
3년 - 4년	10	10.8%	12	6.6%	28	8.7%
4년 - 5년	7	7.5%	9	5.0%	20	6.2%
5년 이상	2	2.2%	7	3.9%	9	2.8%

Q2. 한국 유학을 위한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한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	48	41.7%	58	24.2%	126	30.7%
본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	14	12.2%	44	18.3%	65	15.9%
학교 장학금	31	27.0%	63	26.3%	106	25.9%
내가 모아놓은 돈	10	8.7%	13	5.4%	27	6.6%
부모님의 지원	5	4.3%	35	14.6%	46	11.2%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6	5.2%	18	7.5%	29	7.1%
대출	0	0.0%	3	1.3%	3	0.7%
기타	1	0.9%	6	2.5%	8	2.0%

Q3. 한국 유학생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업 관련	45	25.4%	74	19.5%	134	22.2%
법과 제도	9	5.1%	10	2.6%	19	3.1%
경제적인 문제	20	11.3%	61	16.1%	89	14.7%
심리적인 문제	14	7.9%	37	9.7%	55	9.1%
사회적인 문제	5	2.8%	28	7.4%	37	6.1%
외국에서의 적응 문제	33	18.6%	59	15.5%	96	15.9%
주거 문제	15	8.5%	24	6.3%	41	6.8%
이성 교제	21	11.9%	33	8.7%	57	9.4%
종교 활동	7	4.0%	37	9.7%	47	7.8%
여가 활동	3	1.7%	10	2.6%	14	2.3%
기타	5	2.8%	7	1.8%	15	2.5%

Q4.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2.2%	2	1.1%	5	1.6%
그렇지 않다	2	2.2%	7	3.9%	11	3.4%
보통이다	25	26.9%	47	26.1%	87	27.0%
그렇다	54	58.1%	93	51.7%	173	53.7%
매우 그렇다	10	10.8%	31	17.2%	43	13.4%

Q5.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로	54	58.1%	71	39.2%	151	46.9%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등의 권유로	5	5.4%	22	12.2%	31	9.6%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	14	15.1%	65	35.9%	87	27.0%
전공 등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11	11.8%	4	2.2%	18	5.6%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9	9.7%	11	6.1%	22	6.8%
기타	0	0%	8	4.4%	1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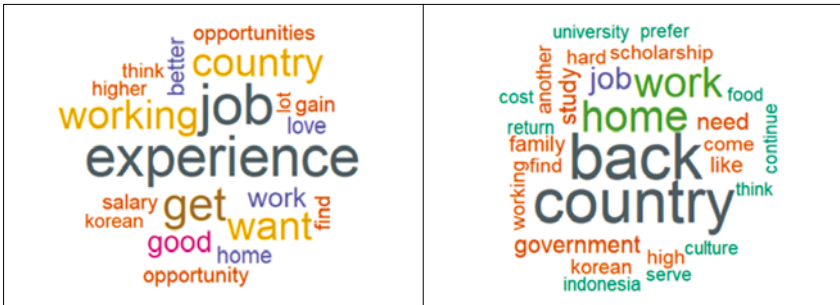
Q6. 유학 이후 한국에서 체류 계획은?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있다	38	40.9%	73	40.3%	134	41.6%
없다	55	59.1%	108	59.7%	188	58.3%

Q6-1.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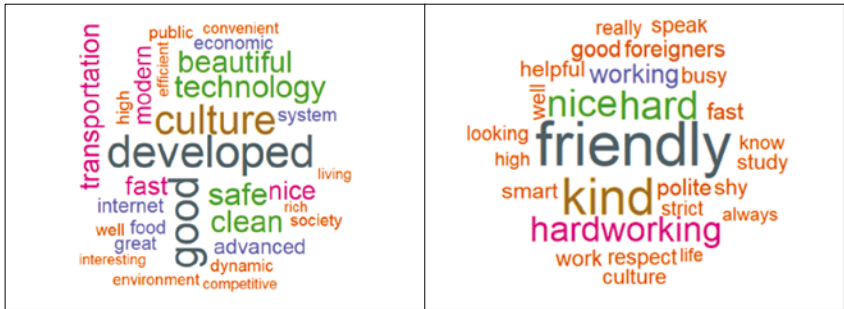


Q7.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2개 선택)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문, 잡지	10	5.9%	22	6.6%	34	5.8%
주변인물	16	9.4%	52	15.5%	74	12.6%
방송(TV/라디오)	38	22.4%	50	14.9%	102	17.3%
인터넷(SNS)	77	45.3%	154	46.0%	271	46.1%
홍보책자 및 도서	15	8.8%	22	6.6%	49	8.3%
수업	4	2.4%	14	4.2%	20	3.4%
관련 행사	8	4.7%	20	6.0%	33	5.6%
기타	2	1.2%	1	0.3%	5	0.9%

Q8.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Q9.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Q10.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5.4%	4	2.2%	10	3.1%
그렇지 않다	3	3.2%	5	2.8%	10	3.1%
보통이다	19	20.4%	48	26.5%	76	23.6%
그렇다	57	61.3%	102	56.4%	187	58.1%
매우 그렇다	9	9.7%	22	12.2%	37	11.5%

Q11. 한국인이 본인의 출신국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모른다	5	5.4%	7	3.9%	14	4.3%
모른다	15	16.1%	38	21.0%	66	20.5%
보통이다	27	29.0%	56	30.9%	98	30.4%
잘 안다	38	40.9%	70	38.7%	120	37.3%
아주 잘 안다	8	8.6%	10	5.5%	22	6.8%

Q12. 한국은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3.2%	4	2.2%	8	2.5%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4.3%	12	6.6%	19	5.9%
보통이다	26	28.0%	65	35.9%	105	32.6%
도움이 된다	52	55.9%	81	44.8%	158	49.1%
매우 도움이 된다	8	8.6%	19	10.5%	30	9.3%

Q13.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관계없다	6	6.5%	8	4.4%	17	5.3%
관계없다	11	11.8%	34	18.8%	56	17.4%
보통이다	41	44.1%	86	47.5%	149	46.3%
관계있다	32	34.4%	46	25.4%	85	26.4%
매우 관계있다	3	3.2%	7	3.9%	13	4.0%

Q14. 한국의 대중문화(한류)를 좋아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	2.2%	7	3.9%	12	3.7%
좋아하지 않는다	3	3.2%	5	2.8%	10	3.1%
보통이다	28	30.1%	48	26.5%	92	28.6%
좋아한다	44	47.3%	83	45.9%	143	44.4%
매우 좋아한다	16	17.2%	38	21.0%	63	19.6%

Q15. 본인의 출신국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인기가 있습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인기가 없다	2	2.2%	6	3.3%	9	2.8%
인기가 없다	2	2.2%	4	2.2%	6	1.9%
보통이다	11	11.8%	6	3.3%	23	7.1%
인기가 있다	35	37.6%	58	32.0%	113	35.1%
매우 인기가 있다	43	46.2%	107	59.1%	169	52.5%

Q16. 한국제품을 좋아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2	2.2%	2	1.1%	5	1.6%
좋아하지 않는다	1	1.1%	1	0.6%	2	0.6%
보통이다	17	18.3%	26	14.4%	49	15.2%
좋아한다	56	60.2%	105	58.0%	187	58.1%
매우 좋아한다	17	18.3%	47	26.0%	77	23.9%

Q17.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나빠졌다	7	7.6%	43	24.0%	63	19.6%
변하지 않았다	27	29.3%	65	36.3%	107	33.2%
좋아졌다	58	63.0%	71	39.7%	147	45.7%

Q18. 한국과 동남아(아세안)의 현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나쁘다	1	1.1%	1	0.6%	2	0.6%
약간 나쁘다	3	3.3%	1	0.6%	4	1.2%
보통이다	11	12.1%	45	25.3%	67	20.8%
약간 좋다	60	65.9%	110	61.8%	197	61.2%
매우 좋다	16	17.6%	21	11.8%	45	14.0%

Q19. 다음 중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제협력	57	18.8%	113	21.5%	201	20.7%
이주노동	34	11.2%	52	9.6%	97	10.0%
탈북자	6	2.0%	12	2.2%	22	2.3%
관광	46	15.1%	84	15.6%	151	15.6%
마약	1	0.3%	0	0%	2	0.2%
국제결혼	9	3.0%	25	4.6%	40	4.1%
ODA(공적개발원조)	16	5.3%	24	4.4%	42	4.3%
선교	4	1.3%	3	0.6%	9	0.9%
해외송금	0	0%	0	0%	0	0%
테러	3	1.0%	5	0.9%	13	1.3%
해외투자	28	9.2%	46	8.5%	86	8.9%
유학	31	10.2%	52	9.6%	93	9.6%
범죄	1	0.3%	2	0.4%	3	0.3%
성매매	1	0.3%	1	0.2%	4	0.4%
비자	13	4.3%	25	4.6%	41	4.2%
전염병	4	1.3%	0	0%	6	0.6%
FTA(자유무역협정)	13	4.3%	26	4.8%	50	5.1%
대중문화	19	6.3%	48	8.9%	71	7.3%
환경	8	2.6%	8	1.5%	16	1.6%
이민	10	3.3%	9	1.7%	21	2.2%
기타	0	0%	2	0.4%	3	0.3%

Q20. 한국의 어떤 분야가 동남아(아세안)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민주주의	7	3.3%	7	1.7%	16	2.2%
경제발전	56	26.4%	63	15.6%	139	19.5%
한류문화	59	27.8%	141	34.9%	230	32.3%
시민사회	5	2.4%	11	2.7%	16	2.2%
교육수준	19	9.0%	34	8.4%	65	9.1%
의료 및 보건	13	6.1%	14	3.5%	31	4.4%
IT 분야	35	16.5%	67	16.6%	118	16.6%
사회복지	4	1.9%	10	2.5%	17	2.4%
관광	14	6.6%	56	13.9%	79	11.1%
기타	0	0%	1	0.2%	1	.1%

Q21. 동남아(아세안)의 어떤 분야가 한국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천연자원	44	21.6%	64	17.5%	127	19.4%
노동력	28	13.7%	51	13.9%	89	13.6%
상품시장	14	6.9%	34	9.3%	62	9.5%
문화유산	25	12.3%	52	14.2%	77	11.8%
자연환경	13	6.4%	38	10.4%	52	7.9%
물가	8	3.9%	13	3.6%	21	3.2%
투자	40	19.6%	51	13.9%	112	17.1%
어학 및 유학	22	10.8%	49	13.4%	86	13.1%
이민	4	2.0%	10	2.7%	17	2.6%
기타	6	2.9%	4	1.1%	12	1.8%

Q22.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3	3.2%	6	3.3%	18	5.6%
안 좋아질 것이다	0	0%	2	1.1%	3	0.9%
보통이다	10	10.8%	18	10.0%	34	10.6%
좋아질 것이다	59	63.4%	110	61.1%	198	61.5%
매우 좋아질 것이다	21	22.6%	44	24.4%	66	20.5%

Q23.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	19	20.4%	31	17.2%	58	18.0%
군사안보 협력 확대	7	7.5%	7	3.9%	14	4.3%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	39	41.9%	78	43.3%	138	42.9%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	17	18.3%	36	20.0%	63	19.6%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	11	11.8%	26	14.4%	44	13.7%
기타	0	0%	2	1.1%	2	0.6%

Q24.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안 될 것이다	1	1.1%	0	0%	1	0.3%
안 될 것이다	4	4.3%	4	2.2%	9	2.8%
모르겠다	27	29.3%	49	27.5%	88	27.3%
잘 될 것이다	47	51.1%	107	60.1%	182	56.5%
매우 잘 될 것이다	13	14.1%	18	10.1%	36	11.2%

Q25. 동아시아 국가(한, 중, 일, 아세안)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안 될 것이다	1	1.1%	6	3.4%	9	2.8%
안 될 것이다	11	11.8%	24	13.4%	38	11.8%
모르겠다	21	22.6%	59	33.0%	95	29.5%
잘 될 것이다	49	52.7%	77	43.0%	145	45.0%
매우 잘 될 것이다	11	11.8%	13	7.3%	31	9.6%

Q25-1.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나 체제가 다르다	4	9.3%	8	10.1%	16	5.0%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	18	41.9%	38	48.1%	69	21.4%
나라 간에 역사분쟁, 영토분쟁이 심하다	11	25.6%	24	30.4%	43	13.4%
문화적 차이가 크다	0	0%	1	1.3%	6	1.9%
기타	10	23.3%	8	10.1%	33	10.2%

Q25-2.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종족적으로 유사하다	5	6.8%	3	2.6%	12	3.7%
지리적으로 가깝다	15	20.5%	26	22.4%	49	15.2%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4	46.6%	51	44.0%	101	31.4%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다	13	17.8%	27	23.3%	48	14.9%
기타	6	8.2%	9	7.8%	25	7.8%

Q26. 한국인 혹은 한국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을 순서대로 두 가지 이상 적어주세요.



Q27.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고 있다	49	53.8%	89	50.3%	172	53.4%
모른다	42	46.2%	88	49.7%	142	44.1%

Q27-1.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아세안) 관계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호인식 제고	13	24.5%	28	26.9%	53	26.1%
무역&투자 촉진	15	28.3%	11	10.6%	28	16.6%
문화관광	11	20.8%	28	26.9%	47	24.8%
정보자료 제공	3	5.7%	4	3.8%	8	4.5%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10	18.9%	33	31.7%	58	27.4%
기타	1	1.9%	0	0%	4	0.6%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Mutual Perceptions of ASEAN and Korean Youth

펴낸날	2017년 11월 30일
지은이	한국동남아연구소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펴낸곳	한-아세안센터
디자인	고투워크
교정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전화	02-2287-1143
팩스	02-2287-1160
이메일	info@aseankorea.org
홈페이지	www.aseankorea.org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맞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The ASEAN-Korea Centre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It was officially inaugurated on 13 March 2009, the year that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www.aseankorea.org



Visit Asean@50
GOLDEN CELEBRATION 2017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이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일 것이다. 이에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를 펴낸다.



ISBN 979-11-88409-12-9
ISBN 979-11-88409-04-4 (세트)